원리

기본 완성

정답과 해설

I 운문 문학

본문 10쪽

01 시의 화자, 대상, 상황

개념 확인 문제 **1** 재회, 독백 | ③

1 이 시의 화자는 죽은 누이에게 말을 건네는 대화체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청자인 누이는 죽은 상황이므로 내용상 독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내 한 잔은 마시고'에 이 시의 화자인 '나'가 제시되어 있다.

② '가을 산 그리메에 빠져 떠돌던, 그 눈썹 두어 낱'은 '누이의 죽음'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죽은 누이와의 재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화자의 모습을 '못물'에 비친 '눈썹'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시적 화자가 이승과 저승의 거리를 가깝게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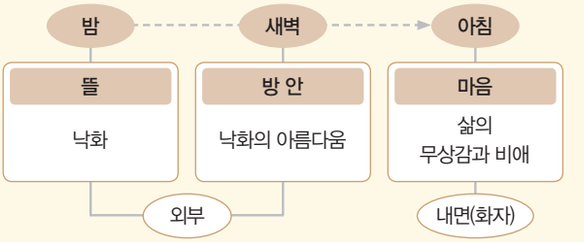
⑤ 강물에 비친 기러기 떼의 모습에서 누이의 눈썹을 떠올리며 누이를 회상하고 있다.

유형 연습 문제

1 꽃, 감탄, 4 | ④

조지훈, 「낙화」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묘사적, 애상적
- **주제:** 낙화에서 느껴지는 삶의 무상감과 비애
- **구성**
  - ① 1~3연: 꽃이 지는 시간을 기다리는 서글픔(선경)
  - ② 4~6연: 방안에서 느끼는 낙화의 아름다움(선경)
  - ③ 7~9연: 꽃이 지는 아침에 느끼는 서글픔(후정)
- **해제:** 이 작품은 화자가 떨어지는 꽃을 바라보며 느끼는 삶의 무상감과 비애를 노래한 시이다. 이 시의 화자는 꽃이 지는 것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새벽에서 아침으로 변하는 시간의 변화 속에서 화자는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꽃이 지는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 촛불마저 끄고 미닫이창에 비치는 은은한 붉은 빛을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는 화자의 심정은 7~9연에 나타난다. 낙화를 본 화자는 자신의 내면 상태로 시선을 돌려 '꽃 지는 아침은/울고 싶어라'라고 표현함으로써 낙화에서 느끼는 삶의 무상감과 비애를 드러내고 있다.



1 [D]에서 화자는 자연에 묻혀서 사는 자신의 마음을 아는 이가 있을까 저어(염려)하고 있다. 즉, 화자는 암울한 시대에 은둔한 채 살아가야 했던 자신의 내면을 '묻혀 사는 이의/고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이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을 향한 고운 마음을 끊어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A]에서 화자는 꽃이 지는 자연 현상을 바람의 탓이라 할 수 없다고 한다. 즉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라는 화자의 인식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② 별이 스러지고 먼 산이 다가왔다는 상황을 통해 시간이 흘러 아침이 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별'을 통해 소멸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③ [C]에서 화자는 꽃이 지는 현상에 대해 '촛불을 끄'는 행동으로 동참하고 있다. 꽃이 지는 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의 질서를 '촛불을 끄는' 행동을 통해 받아들이는 화자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⑤ '꽃 지는 아침' 화자는 울고 싶다고 표현하고 있다. 꽃이 지는 현상에서 느끼는 소멸해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 12쪽

02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

개념 확인 문제 **1** 소망, 비유, 수미 상관 | ④

1. 화자는 '추운 겨울'로 집약되는 현실의 시련과 고난에도 당신과 날과 씨로 만나 '비단' 같은 사랑을 엮기를 소망하고 있다. 따라서 '꿈'은 희망을 나타낸 것이지, 현실에서의 불가능함으로 인한 절망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유형 연습 문제

1 바다, 반복, 대조 | ②

문정희, 「울포의 기억」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회상적, 사색적, 성찰적
- **주제:** 어린 시절 보았던 뻘밭을 떠올리며 느낀 삶의 의미

• **구성**
① 1~6행: 뻘밭에서 발견한 생명력
② 7~10행: 뻘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사색
③ 11~17행: 뻘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치열한 삶의 모습
• **해제:** 이 작품은 어릴 적 어머니와 바다에 갔던 경험을 바탕으로, 뻘밭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생명력 넘치는 모습과 그곳에서 힘겹게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치열한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율포의 바닷가 풍경에 대해 묘사한 뒤, 먹이를 건지기 위해 무릎을 꺾고 허리를 깊게 굽히는 사람들의 행위와 쓸쓸한 맨살처럼 느껴지는 뻘밭의 모습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삶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성찰과 사색의 결과 얻어진 깨달음은 '슬프고 경건한 손'이라는 시구를 통해 집약되어 표현된다.

1. 왜 '무릎을 꺾는 것일까', '깊게 허리를 굽혀야만 할까'에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 뻘밭이라는 척박한 환경에 맞서 고된 노동을 감당하고 있는 인간의 억척스러운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에게 먹거리가 되어 주는 뻘밭의 생명체에 대한 겸허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오답 분석
①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이라는 시구는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던 가난한 어린 시절을 회상하기 위한 시구가 아니라, 어린 시절 뻘밭에서 본 힘들지만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머니와 바다에 갔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려내기 위한 시구이다.
③ '푸른 물'과 '검은 뻘밭'에서 '푸른'은 자연 공간으로서 바다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을 환기하는 시어이다. '소금기 많은'이라는 표현을 통해 '바다'는 '(육지)생명이 살기 어려운' 공간임을 보여 준다. 이에 비해 '검은'은 어두운 이미지를 지닌 시어로, 생명이 살아가는 환경의 척박함을 환기하고 있다. 이러한 척박한 곳에서 무수히 많은 생명이 위험을 무릅쓰고 꿈틀거리는 공간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두 공간의 대립을 통해 화자는 삶과 관련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아니었다'와 '때문이었다, 위해서였다'의 표현은 바다의 겉모습에 해당하는 '소금기 많은 푸른 물'과 '무위한 해조음'이 아닌 삶의 진실을 담고 있는 '검은 뻘밭'과 '슬프고 경건한 손'을 통해 '뻘밭'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역동적인 모습과 노동 현장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실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화자는 '뻘밭의 생명체들과 뻘밭에서 힘겹게 노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얻은 삶의 의미'에 대한 성찰을 보여 주고 있다.
⑤ '성자처럼 뻘밭에 고개를 숙이고'는 뻘밭의 생명체를 잡는 사람들의 노동의 공간으로써, '뻘밭'이 숭고한 공간임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또 '슬프고 경건한 손'은 힘들지만 치열하게 살아가는 바닷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표현이다. 따라서 두 표현에는 화자가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는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03 시어의 음악성

개념 확인 문제 **1 안타까움, 자문자답, 시적 허용** | ④

1. 이 시는 3음보와 4음보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운율감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3음보 율격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날같이'에는 불필요한 'ㄹ'이 첨가되었고, '희미론'은 시인이 의도적으로 만든 조어로, 의미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운율감을 살리고 있다.
② '~을 아실 이'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마음, 눈물, 보람, 향 맑은' 등을 통해 'ㄴ, ㄹ, ㅁ, ㅇ' 음을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음악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⑤ '날같이(나+ㄹ+같이), 어리우는(어리+우+는), 하오련만(하+오+련만)'에서 운율을 위한 의도적 음운 첨가를 찾아볼 수 있다.

유형 연습 문제

1 체념적, 동일한 시구, 4단 구성, 한, 청각적, 의성어, 적극적 | ⑤

가 작자 미상, 「가시리」
• **갈래:** 고려 가요
• **주제:** 이별의 정한(情恨)
• **구성**
① 1연: 원망에 찬 하소연
② 2연: 원망과 하소연의 고조
③ 3연: 감정의 절제와 체념
④ 4연: 이별 후의 소망
• **해제:** 간결한 형식과 소박하고 함축성 있는 시어를 통해 전통적 민요의 특질인 한(恨)의 정서가 잘 표현된 작품이다.
'애원(현실, 인식) → 고조(탄식) → 절제(전환) → 기다림(양보)'이라는 갈등 해결 구조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나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주제:** 누군가를 기다리는 동안의 절실함, 사랑하는 이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
• **구성**
① 1~12행: 너를 기다리며 느끼는 설렘과 절망감
② 13~22행: 너에게 다가가며 너를 기다림.
• **해제:** '너'와 '나'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다림의 정서를 형상화한 시이다. 오지 않는 대상을 기다리다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화자의 심리가 잘 표현되어 있다.

1. (가)는 3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으나, (나)는 음보의 반복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 분석

① (가)는 후렴구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大平聖代)'를 사용하여 운율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는 '3·3·2'라는 동일한 글자 수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나)의 '너였다가 /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아주 먼 데서,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간다~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와 같이 반복과 변주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나)는 '-ㄴ다'와 같은 평서형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문 16쪽

04 시어의 함축성

개념 확인 문제 **1** 희생, 시간 순서, 명령형 | ⑤

1. ㉤은 초월적, 신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의 광복을 가져올, 즉 민족을 구원할 민족 지도자를 의미한다.

유형 연습 문제

1 사랑, 구체화 | ④

장석남, 「배를 매며」

- **갈래:** 서정시, 자유시
- **성격:** 비유적, 상징적
- **주제:**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 **구성**
  - ① 1연: 배를 매어 본 경험
  - ② 2연: 배를 매듯 갑자기 찾아온 운명적인 사랑
  - ③ 3연: 사랑하는 사람을 둘러싼 세계
  - ④ 4연: 사랑에 대한 깨달음
  - ⑤ 5연: 설렘으로 온종일 들떠 있는 마음
- **해제:** 이 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랑이 찾아와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을 배를 정박시키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대상을 둘러싼 세계까지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랑의 의미를 노래하고 있다.

1. 바닷물의 '물'은 부두로 배가 올 수 있게 한 존재이므로 '사랑의 매개체'로 볼 수 있다. 또한 잔잔한, 배의 주변 상황을 드러내 주는 것이므로, '이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분석

③ '부둣가'는 바다를 향해 열려 있는 공간으로 만남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화자의 사랑이 시작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본문 18쪽

05 시어의 형상성

개념 확인 문제 **1** 여정, 종결 어미, 대비 | ①

1. ㉠에는 시각(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승달)을 촉각화(시리다)한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①에 역시 시각(어둠)을 촉각화(스미는)한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오답 분석

②, ④에는 시각적 심상이, ③에는 청각적 심상이, ⑤에는 후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유형 연습 문제

1 회상, 향토적, 시각적 | ①

박재삼, 「추억에서」

- **갈래:** 서정시, 자유시
- **성격:** 애상적, 회고적
- **주제:**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한스러운 삶을 살았던 어머니에 대한 회상
- **구성**
  - ① 1연: 해질 무렵의 진주 장터
  - ② 2연: 가난으로 인해 한이 맺힌 어머니의 삶에 대한 회상
  - ③ 3연: 추위에 떨며 어머니를 기다리는 어린 시절의 오누이
  - ④ 4연: 어머니의 한과 눈물
- **해제:** 어린 시절 어머니를 기다리던 추억을 떠올리며, 고달픈 삶을 살아가던 어머니의 한스러운 모습을 회상한 시이다. 화자는 '빛 발(發)하는 눈깔', '은전(銀錢)',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등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그러한 한(恨)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1. ㉠은 촉각적 심상을 통해 어린 시절 화자가 처했던 암울한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오답 분석

②, ③ ㉠은 촉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상황을, ㉡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어머니의 한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은 어머니의 한이 극복되었다기보다 한이 드러나는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⑤ ㉠에서는 화자의 애처로운 모습을, ㉡에서는 어머니의 한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둘의 처지가 대조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본문 20쪽

06 시의 표현 기법

개념 확인 문제 1 ⑤

1. 〈보기〉의 내용은 반어와 역설에 대한 설명이다. ①~④는 역설법이 쓰였지만 ⑤의 시에서 화자는 '시시(時時)로 불다 마는 바람에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 차라리 더 큰 시련, 벼락을 쳐 달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다 마는 바람이 그치지 않고 불기를, 사랑이 끝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반어적 표현이다.

오답 분석

① 찬란함과 슬픔의 병치를 통해 논리적 모순이 드러나는 역설적 표현이 쓰였다.

② 외로움과 황홀함의 병치를 통해 논리적 모순이 드러나는 역설적 표현이 쓰였다.

③ 사랑을 위해 오히려 이별이 있어야 한다는 상식에 어긋나는 역설적 표현이 쓰였다.

④ 봄이 되어 눈이 녹은 후 꽃을 터뜨리는 나무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였다.

유형 연습 문제

1 그리움, 후렴구, 감각적 | ④

정지용, 「향수」

- **주제:**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 **성격:** 향토적, 감각적, 회화적
- **구성**
  - ① 1연: 평화롭고 한가한 고향의 정경
  - ② 2연: 고향의 겨울밤 풍경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 ③ 3연: 꿈과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유년 시절의 회상
  - ④ 4연: 어린 누이와 소박한 아내에 대한 회상
  - ⑤ 5연: 고향 집과 단란했던 가족의 모습에 대한 회상
- **해제:** 이 시는 가난했지만 평화로웠던 어린 시절 고향의 모습을 회상하며, 그곳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각 연마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며 고향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후렴구 반복을 통해 각 연의 경계를 구분하며 통일적 형식미를 주면서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 4연 '밤 물결 같은/검은 귀밑머리' 등에서 시각적인 표현과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바다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고 누이의 모습, 즉 검은 머리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분석

① 1연의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은 실개천이 흐르는 모습을 의인화한 표현이다.

② 연의 마지막 부분에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 리야'라는 동일한 후렴구를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③ 전체적으로 시각, 청각, 촉각,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향의 모습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⑤ 1연의 '금빛 게으른 울음'은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한 표현으로 한가한 고향의 정경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본문 22쪽

07 시의 시상 전개 방식

개념 확인 문제 1 고독, 수미 상관, 각운, 3음보 | ⑤

1. 4연이 꽃이 지는 낙화 현상을 다루고 있어서 '대상의 상실'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좌절감에 빠진 화자의 심정을 드러냈다기보다 피고 지는 꽃을 통해 자연의 순환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분석

① 1연과 4연은 유사한 구조의 반복을 통해 '수미 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이 시는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의 흐름이 시상 전개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이 시의 산은 공간적 배경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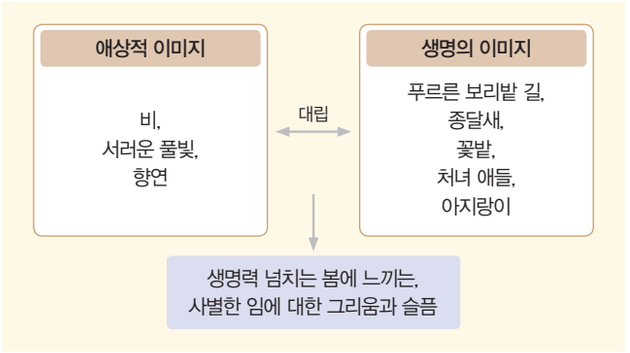
④ 꽃은 피고 지는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반복하므로 시상을 전개하기에 적합한 대상이라 볼 수 있다.

유형 연습 문제

[1~2] 사별, 대비, 3음보 | 1 ⑤ 2 ④

이수복, 「봄비」

- **갈래:** 서정시, 자유시
- **성격:** 향토적, 애상적
- **주제:** 사별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 **구성**
  - ① 1연: 서러운 풀밭이 짙어오는 '나'의 마음속 강나루
  - ② 2연: 종달새가 지껄이는 푸르른 보리밭
  - ③ 3연: 처녀애들 짝하여 새로이 서는 꽃밭
  - ④ 4연: 향연같이 타오르는 아지랑이
- **해제:** 이 시는 3음보의 민요적 율격으로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인 봄의 풍경과, 임과 사별한 화자의 서러운 정서를 대비시켜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풀빛, 종달새, 처녀, 아지랑이 등을 통해 봄의 생명력을 말하지만 화자의 내면은 이와 어울리지 않는다. 풀빛은 서럽고, 종달새는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껄인다고 하였으며 아지랑이 역시 죽은 이 앞에 타오르는 향연과 같다고 하였다. 이렇듯 생명력이 약동하는 봄을 가정하여 사별로 인한 '한'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애절한 느낌을 준다.



1. 이 시는 만물이 소생하고 부활하는 생명의 계절인 봄과 사랑하는 임과 사별한 화자의 슬픔을 대비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 이 시는 비 온 뒤를 가정하여 봄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 속에서 죽은 임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즉 생동감 넘치는 봄의 이미지와 화자의 애상적 정서를 대비시켜 화자의 정서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④에서 '임과의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화자의 슬픈 정경'은 화자는 이미 임과 사별한 상황이어서 이 시의 시적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 분석

① '이 비 그치면'은 비 온 뒤의 상황을 상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② '푸른 강둑(1연) → 보리밭 길(2연) → 꽃 밭(3연) → 들판(4연)'으로 시선이 이동하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③ 생동감 넘치는 봄의 자연(2연과 3연)과 화자의 애상적인 정서(1연과 4연)가 대조를 이루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⑤ '비'의 하강적 이미지와 '풀, 종달새, 꽃, 아지랑이'의 상승적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아름답고도 슬픈,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본문 24쪽

08 시의 종합적 감상

개념 확인 문제 **1** 절망, 의지, 역설 | ②

1. 작품의 내재적 의미에 주목하여 감상한다는 것은 작품 자체의 내적 구조와 요소만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관점, 즉 내재적 관점에 따라 감상하는 것을 말한다. ②는 작품의 내적 요소인 화자에 주목한 내재적 관점에 따른 감상이다.

오답 분석

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인 독자를 중심으로 읽어 내고 있으므로 효용론적 관점에 따라 감상하고 있다.

③ '겨울'과 같은 비극적 상황을 '무지개'로 바꾸어 생각한 것에서 시인의 초극 의지를 읽어 내고 있으므로 표현론적 관점에 따라 감상하고 있다.

④ '이육사 시인의 삶' 중 '일제에 대한 저항과 투쟁의 치열했던 인생 역경'을 중심으로 읽어 내고 있으므로 표현론적 관점에 따라 감상하고 있다.

⑤ '1940년대에 쓰여진 것',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이라는 작품 외적 현실을 근거로 읽어 내고 있으므로 반영론적 관점에 따라 감상하고 있다.

유형 연습 문제

1 소망, 시각적 | ④ **2** 슬픔, 나열 | ④

김용택, 「섬진강 10 – 하동 포구」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의지적
- **화자:** 민중들의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바라는 이
- **정서 · 태도:** 희망적
- **주제:** 공동체적 삶에 대한 염원, 연대하는 삶에 대한 갈망
- **구성**
  - ① 1~4행: 강의 지류가 모여드는 모습을 통해 보는 민중의 삶
  - ② 5~10행: 하나로 모여들어 어울리는 민중의 공동체적 유대감
  - ③ 11~17행: 민중의 삶의 애환과 공동체적 유대감
- **해제:** 한데 어우러져 출렁거리는 하동 포구의 물결 속에서 공동체적인 삶에 희열을 느끼고 이를 갈망하는 화자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1. 이 시에서는 구체적인 청자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화자가 독자에게 노래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그러나 '독자는 화자가 자신에게 노래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은 효용론적 관점(ⓔ)에 해당하는 감상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당대 민중들의 공동체적 유대감'에서 당대 현실을 중심으로 감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섬진강 시인'이라는 시인에 대한 평가'와 시인의 '섬진강에 대한 애정'을 중심으로 감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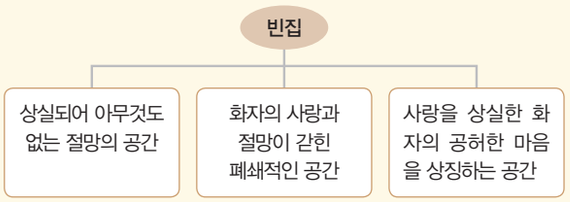
③ 작품의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감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⑤ 독자의 '당대 민중들의 공동체적 유대감에 대한 깨'달음을 중심으로 감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기형도, 「빈집」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애상적, 비유적, 독백적
- **제재:** 사랑의 상실
- **주제:** 사랑을 잃은 공허함과 절망
- **구성**
  - ① 1연: 사랑을 잃어버린 상황
  - ② 2연: 사랑을 잃은 후의 화자의 내면
  - ③ 3연: 세상과의 소통 단절

• **해제:** 이 작품은 사랑을 잃은 슬픔과 의미를 가졌던 모든 것과의 이별로 인해 공허해진 내면을 '빈집'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사랑했던 순간과 관련된 대상들을 하나하나 불러 가며 사랑했던 당시의 추억을 떠올린다. '잘 있거라'를 반복하면서 그것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지만, '잘 있거라' 라는 표현 속에는 사랑의 추억들이 온전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빈집'은 사랑의 추억과 열망을 상실한 화자의 공허한 내면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이곳에 지나간 사랑의 추억과 열망을 가두고 문을 잠그는 것은 슬픔을 배가시킨다.



2. 〈보기〉에서 노자가 '방'이 방으로서의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문과 창을 뚫어 만들어야만' 한다고 한 것은, 외부 세계와의 단절과 소통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화자는 '문을 잠'금으로써 '문'을 '벽'으로 전환시키고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거부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화자가 '문을 잠'그는 행위는 '방'이 아닌 '문'의 기능을 상실케 하는 것이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에드워드 호퍼는 미국 도시민들의 '고독감과 절망감을 회화로 형상화'하였다는 〈보기〉의 내용을 볼 때, 건물 안의 여인이 밖을 내다보는 모습은 결국, 밖의 세계를 소망하나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설명이다.

② 〈보기〉는 '문'을 '내, 외부가 단절된 상태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매개의 역할'을 하는 소재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의 화자는 스스로 '문'을 잠금으로써 외부와의 단절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 이 시의 화자와 〈보기〉의 여인은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보기〉의 여인은 밖을 내다보고 있는 대신 이 시의 화자는 스스로 방문을 잠금으로써 외부와 단절하고 있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할 때 적절한 설명이다.

⑤ 〈보기〉의 여인은 건물 안에서 문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고독감을 달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의 화자는 '장님처럼' '더듬거리며 문을 잠'금으로써 스스로를 '빈집에 갇'히게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설명이다.

01 실전 대비 문제

본문 28쪽

현대시 [1~3] 사랑, 역설적, 안타까운, 자연물

1 ② 2 ④ 3 ③

가 서정주, 「견우의 노래」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설화적, 서사적, 역설적
• **주제:** 이별과 기다림을 통해 성숙해지는 사랑
• **특징:** ① 동일 어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②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
③ 설화를 차용하여 사랑의 참된 의미를 제시함.
• **구성**
① 1, 2연: 사랑을 위해 이별이 필요함.
② 3, 4연: 그리움을 위하여 이별이 있어야 함.
③ 5, 6연: 이별한 경우와 직녀의 시련
④ 7, 8연: 재회를 준비하는 견우와 직녀
• **해제:** 이 시는 설화의 주인공인 견우를 화자로, 직녀를 시적 대상이자 청자로 설정하여 견우와 직녀의 이별의 상황을 그리고 있다. 이 시에서 견우는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별을 사랑을 위한 내적 성숙의 기간으로 삼고 긍정적인 태도로 이별의 상황을 대하고 있다.

나 김소월, 「가는 길」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서정적, 민요적, 전통적
• **주제:** 이별의 아쉬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
• **구성**
① 1연: 임에 대한 그리움
② 2연: 미련과 망설임
③ 3연: 이별을 재촉하는 까마귀
④ 4연: 이별을 재촉하는 강물
• **표현상 특징**
①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음.
② 7·5조의 음수율을 바탕으로 한 3음보의 민요조 운율임.
③ 선정 후경의 구조임.
• **해제:** 이 시는 '까마귀'와 '강물'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의 아픔과 그리움을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우리 민족의 내면에 흐르는 보편적 정한과 진솔한 정감을 민요조의 운율에 담아 표현하고 있다.

1. ② (가)는 '은핫물', '반달', (나)는 '까마귀', '강물' 등의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분석

① (가)에서 '사랑을 위하여서는/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라고 말하며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역설적 표현을 찾을 수 없다.

③ (나)에서 1, 2연에서는 화자의 정서를, 3, 4연에서는 자연 경치를 말하고 있는 선정 후경의 구조를 보이지만, (가)에서는 선정 후경의 구조를 찾을 수 없다.

④ (가)는 '직녀'를 청자로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나)는 화자의 독백적 어조로 말하고 있다.
⑤ (가)에서는 '~하네'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반복적인 어미를 찾아볼 수 없다.

2 ㉣ '까마귀'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 아니라 화자와 임의 이별을 재촉하고 있는 대상이다. '까마귀'는 해가 지기 때문에 어서 떠나라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오답 분석
① ㉠은 화자가 그리움을 위해 이별의 고통이 있어야 함을 깨닫고 있다.
② ㉡은 사랑하는 이와 만날 수 있는, 반달이 뜨는 칠월칠석을 기다리고 있는 화자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다.
③ ㉢은 그냥 갈까 말까 망설이며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에서 '강물'은 흘러가는 자연 상태의 물로, 인간의 힘으로 거역할 수 없는 한계를 말하며, 이별을 막을 수 없는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3 ③은 시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를 오늘날 독자들도 공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독자 입장에서 읽어 내고 있으므로 외재적 관점의 하나인 독자 입장(효용론적 관점)에서 감상하고 있다.

오답 분석
① 작품의 주제를 말한 것으로, 내재적 관점의 감상에 해당한다.
② 시의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감상한 것으로, 내재적 관점의 감상에 해당한다.
④ 유음을 사용한 표현의 효과에 대해 생각한 것으로, 내재적 관점의 감상에 해당한다.
⑤ 화자의 정서를 바탕으로 감상한 것으로, 내재적 관점의 감상에 바탕을 둔 것이다.

02 실전 대비 문제

본문 30쪽

고전 시가 [1~3] 비유, 여성, 그리움

1 ② **2** ④ **3** ⑤

가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 **갈래:** 10구체 향가, 정형시, 추도시
- **성격:** 추모적, 불교적
- **주제:**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의 극복
- **구성**
  ① 1~4행: 죽음의 허무함과 혈육의 정(기)
  ② 5~8행: 혈육의 죽음에서 느끼는 인생무상(서)
  ③ 9, 10행: 인간적 고뇌와 종교적 승화(결)
- **표현상 특징**
  ① 정제되고 세련된 표현 기교가 두드러짐.
  ② 불교의 윤회 사상을 기반으로 함.
- **해제:** 이 작품은 누이의 죽음을 계기로 화자가 느끼는 슬픔, 그리움의 정서와 슬픔의 종교적 승화를 비유와 상징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나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 **갈래:** 양반 가사, 서정 가사
- **성격:** 서정적, 의지적
- **운율:** 3(4)·4조, 4음보의 연속체
- **제재:** 임금에 대한 충정
- **주제:** 연군지정
- **구성**
  ① 서사: 임과의 인연과 이별 후의 그리움.
- **표현상 특징**
  ① 「속미인곡」과 더불어 가사 문학의 극치를 이루는 작품
  ② 고려 가요 「정과정」의 맥을 잇는 충신연군지사(忠臣戀君之詞)
  ③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구사한 작품
- **해제:**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충정을 임과 이별한 여성의 처지에 빗대어 형상화한 시가이다.

1. (가)는 죽은 누이를 그리워하며 누이의 49재에 지어 부른 노래이다. 또한 (나)는 시적 화자가 임과 이별하고 임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이다. 따라서 두 작품은 모두 대상의 부재(不在)로 인한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가)에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 있지 않다. (나)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고조되고 있다.
③ (가)는 화자가 죽은 누이를 미타찰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나)는 임과의 이별의 상황만을 표현한 부분으로 재회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화자 자신의 과거에 대한 반성적 인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2. ⓑ와 ⓓ는 모두 '죽은 누이'를 의미한다. 동기간은 화자와 죽은 누이이다.

오답 분석
① ⓐ는 화자가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빌고 있는 곳이므로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여기'이다.
② ⓒ에서 '바람'은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자연적 질서인데 그 바람이 빨리 불었다는 것은 '요절'을 의미한다.
③ ⓓ는 죽은 누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⑤ ⓕ는 '극락세계'로, 망매가 가 있기를 화자가 바라는 곳이며, 화자 자신도 죽어서 가기를 바라는 이상적인 세계이다. 또한 화자는 불도를 닦으며 ⓕ에서 망매와 재회하기를 바라고 있다.

3. (가)는 향가, (나)는 가사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보기〉의 향가는 '향찰로 기록된 서정 갈래'라는 내용을 근거로 할 때

(가)가 서정적인 면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서정적인 시와 서사적인 산문 내용의 작품'이라는 내용과 함께, 이 작품은 '운문의 형식을 취하면서 내용은 산문적인' 작품이라는 점을 근거로 할 때 ⑤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 분석

① (가)는 10구체 향가로 '낙구의 첫어절이 감탄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정형성을 띠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나)는 '3·4·3·4'가 한 구절이고 그 안에는 4음보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정형성을 띠고 있다.

② (가)는 10구로 이루어진 형식을 띤 10구체 향가이다. 〈보기〉의 '형식이 발전되었다는 말은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폭넓은 형식으로 발전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할 때 적절한 설명이다. (나)는 '분량의 제한이 없는 형식'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할 때 적절한 설명이다.

③ 〈보기〉에서 10구체 향가는 '낙구의 첫어절이 감탄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낙구'는 9구와 10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에서는 '아아'라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응축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적절한 설명이다.

④ 〈보기〉에서 가사는 '3·4·3·4'가 한 구절이고 그 안에는 4음보로 이루어져 있다. 이로써 음악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설명이다.

03 실전 대비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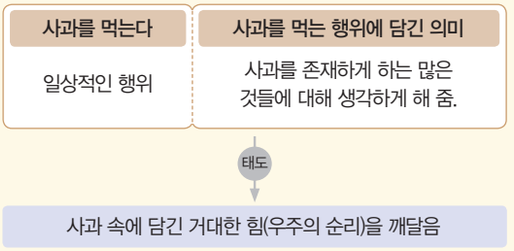
본문 32쪽

현대시 [1~3] 반복적, 깨달음, 통시, 순환

1 ⑤ 2 ② 3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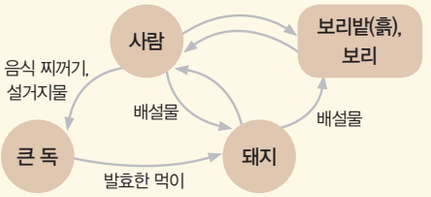
가 함민복, 「사과를 먹으며」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사색적, 성찰적, 역설적
- **주제:** 사과를 먹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생명 순환의 원리
- **표현상 특징**
  - ① 일상적 경험에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작가의 개성적 인식이 드러남.
  - ②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시상의 통일성을 부여함.
  - ③ 시어 및 시행을 의도적으로 배치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 ④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시적 대상이 확대되면서 점층적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짐.
- **해제:** 화자는 사과를 먹는 행위를 통해 '사과'를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해 사색하면서, 사과에는 수많은 우주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된다. 특히 '사과가 나를 먹는다'는 '내가 먹던' 사과가 '나'를 먹게 되는 반전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이는 '나'가 사과를 먹으며 사과를 존재하게 만든 수많은 요인을 생각하면서, 모든 존재가 관련을 맺고 있으며, 흙으로 빚어진 사과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생명 순환의 원리를 발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김선우, 「신(神)의 방」

- **갈래:** 자유시, 서정시, 산문시
- **성격:** 묘사적, 사색적
- **주제:**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는 생명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는 통시
- **표현상 특징**
  - ① 제주도의 전통적 공간에서 생태적 순환의 의미를 읽어 내고 있음.
  - ② 생태적 가치관과 편리성, 효율성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대조하고 있음.
- **해제:** 이 시의 제목 '신의 방'은 '신이 거처하는 방, 즉 생명이 숨 쉬는 신성한 방'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 시는 제주도의 전통 재래식 화장실인 '통시'를 생명의 관점에서 묘사하고 해석하고 있는 작품이다. '통시'는 인간의 배변과 돼지의 생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시인은 이 통시에서 생명의 순환을 발견한다. 또한 통시를 통해 '생명이 생명에게 공양되는 법'이라는 자연의 이치를 인식하고, 통시를 문명국의 지표인 변소로 개량하려는 이들과의 가치관의 대립성을 확인한다.



1. (가)는 사과를 먹는 일상적 경험에서 출발하여 자연, 인간, 우주 등으로 사고를 확장하고 있다. (나)는 '통시'라는 공간을 통해 '인간이 버린 음식물 → 돼지 → 배설물 → 보리밭 거름 → 보리 → 인간'이라는 생명이 순환되는 과정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⑤가 적절한 설명이다.

오답 분석

① (가)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드러내는 반면, (나)는 동일한 종결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나)는 생태적 가치관을 의미하는 '통시'와 편리성과 효용성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의미하는 '변소'를 대비하여 생태적 순환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대상 간의 대비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에서는 '사과를 먹는'는 화자의 일상적 행위를 바탕으로 삶의 깨달음을 드러내는 반면, (나)에서는 화자의 일상적 경험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에서는 화자가 고백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고, (나)에서는 화자가 '~요'라는 비격식 상대 높임법을 사용한 대화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2. '장맛비'와 '눈송이'는 모두 계절적 심상과 관련된 것으로, 모두 사과가 우주의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거치는 계절의 순환을 의미한다. 이 시에서 사과를 먹는 행위는 '햇살', '장맛비', '소슬바람', '눈송이', '벌레의 기억' 등 사과와 관계된 자연물과 '사람의 땀방울', '식물학자의 지식', '사과나무 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 등 사과와 관계된 사람들의 노력을 먹는 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계절의 변화를 의미하는 '장맛비'와 '눈송이'는 사과가 우주적 존재로 거듭 나기 위해 수용해야 하는 시련과 고난의 의미가 아니라 사과가 충만함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분석

① '사과'는 이 시의 소재로 '사과 ~ 먹는다'라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써서 일상적 경험이 삶의 원리에 대한 성찰로 확장되고 있다. '사과를 먹는다'라는 단순한 문장에서 시작하여 목적어 '사과를'을 반복, 변형하면서 사과와 관계된 수많은 자연물, 사과를 키우기 위해 애쓴 사람들의 노력 등 사과를 존재하게 한 모든 것으로 사고를 확장하고 있다.

③ '지구의 중력'과 '우주'를 먹는 사과나무가 끝내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흙에서 나왔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인식은, 우주의 모든 생명은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우주적 순환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는 인식과 연결되어 있다.

④ 시행의 첫머리가 '사과'에서 '흙'으로 바뀌는 시행은 20~22행으로 의도적인 들여쓰기를 통해 낯설게 시행을 배치함으로써 생명 순환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⑤ 사과가 '나를 먹는다'는 진술은 행위의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어 있는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은 '내가 사과를 먹는다'는 인식에서 '사과가 나를 먹는다'는 인식으로 확대된 것으로, 사과와 '나'가 서로 순환된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이를 통해 화자는 우주의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고 순환한다는 인간과 자연의 일체감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 '통시가 아직 남아 내 몸속의 방을 향해 손 내밀어 준다'는 구절로 볼 때 '내 몸속의 방'은 '통시'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통시'는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는, 인간의 배설물을 통해 다시 돼지를 기르는 공간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내 몸속의 방' 역시 '생명 공간을 내포한 몸'으로서 생명을 기르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통시'는 인간의 배변 공간으로, 인간과 자연이 대립하는 공간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조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② '방'은 '인간의 배변 장소와 돼지우리가 함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낯설고 재미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인간과 돼지가 공존'하는 '거주 공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변소'는 '통시'와 대비되는, 문명화로 인해 효율성과 편리성을 강조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하늘 가까운 섬사람들'이 미개한 사람들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통시'를 '신이 거주하는 공간'이라고 표현한 것은 생명이 순환되는, 생명의 순환을 드러내는 공간이기 때문이지 종교적으로 승화된 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Ⅱ 산문 문학

본문 36쪽

01 인물의 성격, 심리 및 태도

개념 확인 문제 **1** 풍자, 3인칭 | ③ **2** 사랑, 편집자적 | ⑤

1. 이인국 박사는 보통의 의사와 달리 환자의 증세와 경제 정도를 양면 진단하는 개성적 인물로 왜정 때는 일본인, 현재는 권력층을 주요 고객으로 삼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보여 주는 전형적 인물이며, 시종일관 그러한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평면적 인물이다.

2. "인명이 재천인데 설만들 죽을쏘냐."라는 부분에서 어사또의 낙천적 태도를 엿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당대 양반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오답 분석

① ㉠: 감옥을 찾아온 '춘향모'의 등장에 '춘향이 ~ 깜짝 놀라서'라고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여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② ㉡: '서방(書房)'의 '서(書)'를 '서(西)'로 풀이한 후 이를 '남(南)'과 대체하여 '남방'이라고 말하는 데서 '춘향모'의 익살스런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③ ㉢: 서술자는 어사또의 초라한 행색에 실망을 금치 못하는 춘향의 심리를 자신의 입장에서 헤아려 '어찌 아니 한심하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자의 논평적 해설은 고전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서술 방식이다.

④ ㉣: '춘향'의 안타까운 심리가 대화 형식으로 간접 제시되고 있다.

유형 연습 문제

1 소외, 익명화, 상징적인 | ⑤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 **갈래:** 단편 소설, 도시 소설
- **성격:** 감각적, 현실 고발적
- **배경**
  - 시간: 1964년 겨울
  - 공간: 서울 거리
-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 **주제:** 사회적 연대감과 동질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소외

• **서술상 특징**

① 1960년대 우리 사회의 고독과 소외를 익명의 세 인물을 통하여 드러냄.

② 감각적인 문체와 상징적인 소재(벽으로 나누어진 방, 개미)를 사용함.

• **해제:** 이 작품은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한 1960년대의 도시적 삶에서 소외당한 현대인의 고독과 비애, 고립을 그리고 있다. 당대 '감수성의 작가'로 명성을 얻었던 작가는 세 남자의 겨울 거리에서의 우연한 만남과,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비현실적 대화와 행동을 감각적·인상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인간끼리의 진정한 만남이 불가능해진 현대 사회의 어두운 뒷모습을 극적으로 제시한다.

• **전체 구성**

발단	구청 병사계 직원인 '나'와 대학원생인 '안'이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만나 무의미한 대화를 나눔.
전개	책 외판원 사내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청함.
위기	사내가 아내의 주검을 판 돈을 화재 현장의 불 속으로 던져 버리고 불안에 빠짐.
절정	여관에서 세 사람은 각각 다른 방에 투숙함.
결말	이튿날 새벽, 사내는 자살하고, '나'와 '안'은 여관을 서둘러 나와 헤어짐.

1. '개미'는 죽은 아저씨의 분신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개미를 피해 자리를 옮겨 디디는 '나'의 행동은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안'이 방을 따로 잡자고 말했지만 '나'는 아저씨를 배려하여 모두 한 방에 들자고 한다.

② 혼자 있기 싫다는 '아저씨'의 발언은 두 사람과 같이 있고 싶다는 뜻으로, 소통을 이어가려는 '아저씨'의 심정이 드러난다.

③ 거듭되는 '나'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안'은 끝내 함께 있기를 거부한다. 이러한 '안'의 태도는 이기적인 도시인의 모습을 상징한다.

④ '역시'라는 말에서 '안'이 아저씨의 자살을 예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문 39쪽

02 갈등의 양상과 사건의 전개 과정

개념 확인 문제 **1** 적서 차별, 사회 | ④

1. (가)에는 길동의 입신양명의 의지와, 사회의 적서 차별 제도 사이의 갈등, 즉 인물과 사회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 있으며, (나)에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고뇌하는 개인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다.

유형 연습 문제

[1~2] 사랑, 사실적, 이별 | **1** ⑤ **2** ①

조위한, 「최척전(崔陟傳)」

• **갈래:** 고전 소설, 한문 소설

• **성격:** 우연적, 사실적

• **주제:** 남녀 간의 진정한 사랑과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

• **서술상 특징**

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배경으로 남녀간의 애정 문제와 가족의 이산 그리고 재회의 과정을 그려 냄.

② '만남–이별–재회'가 반복되는 구성을 취함.

• **해제:** 조선 중기에 창작된 한문 소설로써, 작가 조위한이 남원에 은거하고 있을 당시 작품의 주인공 최척이 찾아와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말하며 사건의 전말을 기록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기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당시 국제 정세와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1. 옥영은 최랑이 고의로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므로 최랑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를 어기고 파혼하는 것은 '불의'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심 씨는 딸은 부모의 처분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분석

②, ③ 심 씨의 경우 딸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과 혼처를 잡으려고 한 것이므로 자신의 상황만을 고집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신의 욕심만을 부리고 있다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2. Ⅰ은 전쟁 중 의병으로 징집되면서 옥영과 이별하게 된 최척의 상황, Ⅱ는 두 주인공이 강인한 의지로 다시 만나 혼인을 하고 서로를 지음(知音)으로 자처하는 상황, Ⅲ은 왜구의 침입으로 다시 헤어지게 된 옥영과 최척의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Ⅰ에서 Ⅱ로의 전개는 두 인물의 의지와 주변인의 도움에 의한 것이지 사전에 주인공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오답 분석

② Ⅰ은 임진왜란, Ⅲ은 정유재란이 원인이 된 사건으로, 전쟁으로 인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③ Ⅰ에서 최척은 아버지로부터, Ⅲ에서는 노인 몇 사람으로부터 옥영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있다.

④ 옥영은 즐거움이 다하면 슬픔이 닥칠 것을 염려하였고, 실제 이들은 훗날 이별하게 되었다.

⑤ Ⅱ에서 하루도 떨어져 생활하는 일이 없었던 옥영과 최척이기에 Ⅲ의 이별은 더욱 비극적으로 느껴진다.

본문 42쪽

03 구성의 원리와 유형

개념 확인 문제 **1 액자식, 시점** | ④

1. ⓐ는 이제껏 이야기를 전달한 '나'가 자기도 들은 것이라며 그 이야기의 출처를 밝힌 대목이다. 전형적인 액자 소설 양식으로 ⓐ의 앞부분은 내화이고 뒷부분은 외화이다. 특히 ⓐ 뒷부분(간난이 할아버지, 김 선달, 차손이 아버지 등이 나눈 이야기라는)은 '들은 이야기'의 신빙성을 높여 주는 기능을 한다.

오답 분석

① ⓐ의 '나'는 '들은 이야기'의 내용을 직접 경험한 인물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인물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독자에게 전달하는 인물이다.

② ⓐ의 앞부분은 '들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부 이야기에 해당한다.

③ ⓐ는 성인이 된 '나'가 중학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소설의 주된 내용임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나'가 회상한 내용은 '들은 이야기'를 듣게 된 과정만 보여 줄 뿐이다.

⑤ ⓐ는 나와 간난이 할아버지, 김 선달, 차손이 아버지의 공통된 경험이 아니다. '나'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경험하지는 않았다.

유형 연습 문제

1 역순행, 해학성 | ③

김유정, 「봄·봄」

- **갈래:** 단편 소설, 농촌 소설
- **성격:** 해학적, 향토적
- **배경**
  - 시간: 1930년대
  - 공간: 강원도 산골 마을
-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 **제재:** 혼인 문제
- **주제:** 교활한 장인과 어수룩한 데릴사위 간의 갈등
- **서술상 특징**
  ① 역순행적 구성을 취함.
  ② 비속어와 희극적 표현을 통해 해학성을 유발함.
  ③ 생생하고 감각적인 토속어와 구어체를 사용하여 생동감과 사실감을 줌.
  ④ 비속어 섞인 직설적인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냄.
- **해제:** 김유정 문학 세계의 본령인 해학 내지 해학적 인물이 가장 잘 구체화되어 있는 작품이다. 제목에서 '봄'의 반복은 이 작품의 중심 내용인 성례에 대한 안타까운 기다림, 또는 '나'와 '점순'이 애정에 눈뜨기 시작하는 과정 등을 상징한다. 해학적인 문체와 순진하고 바보스러운 주인공의 모습이 많은 웃음을 유발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작품은 장인(봉필)의 행태를 통해 인간의 간교함에 대한 비판도 보여 주고 있다.

1. 이 소설은 시간적 층위가 다소 복잡하지만 절정과 결말 부분이 시간상 뒤바뀌어 있는 점에 주목해서 사건을 정리해 보면, 사건의 순서와 서술 순서가 바뀌는 부분은 ㉢이다. ㉢은 '그러나' 다음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앞부분은 장인에게 맞고 난 뒤 "올 갈엔 꼭 성례를 시켜 주마. 암말 말구 가서 뒷골의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라는 말을 듣고 감동하는 사건이다. '그러나' 다음 부분은 장인과 '나'의 활극이라는, 그 이전 사건이다. 따라서 사건의 순서와 서술의 순서가 역전되어 나타나는 장면이 시작되는 부분은 ㉢이다.

본문 44쪽

04 시점과 서술상의 특징

개념 확인 문제 **1 초현실적, 짧은** | ⑤

1. 제시된 글은 '귀가한 그(초점 화자)가 아내가 없는 쓸쓸한 아파트의 방을 경험하였다.'는 단순한 내용이다. 그러나 소설의 중심은 이러한 외부 사건보다는 이러한 사건을 경험한 '그'의 내면 의식에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그'를 초점 화자로 설정하여, 초점 화자의 내면 의식(내적 독백, 의식의 흐름)이 외부 사건보다 우위에 있는 소설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유형 연습 문제

1 타락 | ①

김동인, 「감자」

- **갈래:** 단편 소설, 자연주의 소설
- **성격:** 사실적, 자연주의적
- 배경
  - 시간: 1920년대
  - 공간: 평양 칠성문 밖 빈민굴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주제:** 환경으로 인한 한 여인의 도덕적 타락과 비극적 죽음
- **서술상 특징**
  ① 환경적 요인이 인간 내면의 도덕적 본질을 타락시킨다는 자연주의에 바탕을 둠.
  ② 마지막 부분에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사용하여 사실주의 문학의 특징인 객관적인 서술을 보임.

• **해제:** 부패한 세계 속에서 타락해 가는 주인공 '복녀'를 통해 환경 결정론(인간은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을 피력한 작품으로, 자연주의 소설로 분류된다.

1. (가)의 첫 문단에서 서술자는 공간적 배경이나 중심 인물인 '복녀'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이고 담담하게 묘사하지만, 주제와 관련한 주요 내용에 관해서는 전형적인 전지적 관점을 취하며 특정한 의견과 태도를 노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①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 분석

② (나)에서 서술자는 '복녀'의 입장에서,' 복녀'의 심중을 낱낱이 파악하며 설명하고 있다.

③ (다)는 사건의 외적인 부분을 극적으로 제시하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함으로써,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④ (가), (나)와는 달리 (다)의 외부 서술자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파악하기보다는 외부 상황만을 관찰한다는 점에서 제한적 서술자라고 할 수 있다.

⑤ (가)~(다)는 외부 서술자가 존재하는 3인칭 시점을 취하고 있다.

본문 46쪽

05 배경의 역할과 소재의 의미

개념 확인 문제 **1** 내면세계 | ② **2** 물질주의, 돌다리 | ⑤

1. 자욱한 안개에 둘러싸여 폐쇄적 공간이 되는 '무진'은 안개에 의해 비현실적이고 몽환적인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2. 이 글은 토지의 본래적 가치보다 금전적인 가치만을 중시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관을 비판하고 있다. '돌다리'는 본래적 가치를 의미하는 소재로 사용되었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유형 연습 문제

1 중국인 거리, 감각적 | ④

오정희, 「중국인 거리」

- **갈래:** 단편 소설, 성장 소설, 전후 소설
- **성격:** 감각적, 독백적
- **주제:** 유년 시절의 체험과 정신적·육체적 성장
- **서술상 특징**

① 감각적인 문체를 통해 주인공의 예민하고도 섬세한 심리를 드러냄.

② 대화나 독백 등이 화자의 서술과 형식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채 사용됨.

- **해제:** 6.25 전쟁으로 말미암은 한국 사회의 참담하고 궁핍한 삶의 실상을, 피난살이 도중 인천의 중국인 거리에 이주하게 된 한 소녀의 시선을 빌려 성장 소설 형식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1. '석탄'은 회고적으로 서술되는 이 작품에서 서로 다른 장면(석탄 서리 장면, 석탄 때문에 불평하는 할머니, 아이들의 석탄 때를 씻겨 주는 담임 선생님)을 연결하여 유년 시절의 삶을 한 가지로 묶어 주는 구실을 하고 있다.

본문 49쪽

06 소설의 종합적 감상

개념 확인 문제 **1** ④

1. 내재적 감상이란 작품 자체에만 의미를 두고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상반되는 외재적 감상은 작가나 시대 상황 혹은 독자의 상황만을 고려하여 감상하는 것을 말한다. ④는 작품 외의 '작가'를 고려하고 있으므로 외재적 감상이라 할 수 있다.

유형 연습 문제

1 영웅, 권위적, 일대기, 남장 | ③

작자 미상, 「홍계월전」

- **갈래:** 영웅 소설, 군담 소설, 여장군 소설
- **성격:** 일대기적, 영웅적
- **배경:** 명나라 때 중국 일대
- **등장인물**

① 홍계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비범한 능력을 가진 영웅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어릴 때부터 남장을 하여 중세의 남성 중심 사회의 단면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남성들과 경쟁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 정체가 탄로 난 후에도 공을 인정받아 벼슬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

② 여보국: 어릴 때부터 홍계월과 같이 지내며 무술과 병법을 익힌 사이다. 남존여비 사상을 가진 인물로 첩 영춘의 사건으로 홍계월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나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된다.

③ 여공: 여보국의 아버지로 고아가 된 홍계월을 거둬들여 친자식처럼 사랑한다. 위기에서 영웅을 돕는 조력자의 면모를 보인다. 홍계월이 보국의 첩 영춘을 죽인 일에 대해서도 아들의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홍계월을 두둔한다.

- **제재:** 홍계월의 영웅성
- **주제:** 여성인 홍계월의 영웅적 활약상

- **의의:** 남성보다 우월한 여성을 등장시킴으로써 기존 여성 소설의 한계를 벗어남.
- **해제:**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군담 소설이자 여성 영웅 소설이다. 이 작품은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주인공 홍계월의 고행과 이를 극복한 무용담을 그리고 있다. 남성보다 여성의 능력이 우월하게 그려지며 남편이 아내의 지배를 받고 군법을 위반해 엄벌을 받기도 한다. 또한 여성임이 밝혀진 후에도 벼슬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이는 조선 후기 소설의 주요 독자층인 여성들의 정서와 욕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구성**

발단	명나라 때, 홍 시랑은 나이 사십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으나 신비한 꿈을 꾸고 부인 양씨로부터 무남독녀 계월을 얻게 된다. 계월이 다섯 살 때, 북방 절도사 장사랑이 양주 목사와 난을 일으켜 쳐들어왔는데 피란 중에 수적 장길맹에 의해 물에 던져진다.
전개	물에 빠진 계월은 무릉포에 사는 여공에 의해 구조되어 그의 집에서 평국이라는 이름으로 동갑인 여공의 아들 보국과 함께 지내게 된다. 둘은 같이 과거에 응시하게 되었고 계월은 장원으로 보국은 부장원으로 급제한다. 이때 오랑캐가 침범하여 계월은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고 잃었던 부모도 만나게 된다.
절정	전쟁에서 돌아온 계월은 병이 나게 된다. 천자는 어의를 보내 병세를 알아보도록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여자임이 탄로 나게 된다. 계월의 재능을 아끼던 천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용서해 주며 보국과 혼인을 주선한다. 그 후 영춘이라는 보국의 애첩을 죽이는 사건이 생기게 되고 부부의 갈등은 깊어지게 된다. 다시 오랑캐가 침범하여 둘은 전쟁에 나가게 되고 계월은 천자의 목숨과 보국의 목숨을 구한다.
결말	두 차례에 걸친 국가의 위기를 구한 대원수 계월은 대사마 대장군의 작위를 받게 된다. 이에 홍무는 초왕으로 여공은 오왕이 되며 보국은 승상이 된다. 나중에 보국의 자식은 초의 태자가 되고 세상은 태평해진다.

1. 남자가 되지 못한 것에 분해하며 계월이 눈물을 흘리는 것에서 그녀가 여자임을 거부하고 남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이 되어야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남성 중심 사회를 비판하는 의식에서 계월이 눈물을 흘렸다고 보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보국은 계월이 영춘을 죽인 것에 분노하면서 장부로서 계집에게 괄시 당할 수 없다는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남존 여비 사상과 관련된 것이다.

② 여공은 자신의 며느리인 계월이 능력 면에서 남성인 보국보다 우월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④ 천자와 신하들은 계월이 여성임을 알게 된 후에도 벼슬을 거두지 않고 유지했으며, 나라의 위기 상황이 발발하자 계월을 불러 국난을 극복하는 일을 맡기고 있다. 이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계월의 영웅적 면모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⑤ 여공의 말을 통해 계월이 보국을 부릴만한 사람이지만 예로써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존여비 의식이 팽배했던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07 희곡의 특징과 구성 요소

개념 확인 문제 **1** ②

1. 희곡에는 서술자가 없고, 갈등, 사건 등은 등장인물들의 대사와 행동, 지문을 통해서 드러난다.

유형 연습 문제

[1~3] 만선, 모성애, 자연, 사투리 | **1** ⑤ **2** ④ **3** ④

천승세, 「만선」

- **갈래:** 현대극, 사실극, 비극
- **성격:** 사실적, 향토적, 비극적
- **등장인물**
  - ① 곰치: 만선을 꿈꾸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강인하고 우직한 인물
  - ② 구포댁: 자식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아 실성하지만, 모성애가 강해 아기를 빈 배에 태워 뭍으로 보내 곰치와 갈등하는 인물
- **주제:** 만선에 대한 집념과 그 좌절
- **서술상 특징**
  - ① 사투리를 사용하여 향토적인 현실감과 친근감을 높임.
  - ② 인물의 집념과 의지, 갈등을 섬세하게 표현함.
- **해제:** 이 작품은 삶의 현장인 바다와 싸우는 곰치의 도전 정신과, 죽음의 숙명으로부터 자식들을 지키고자 하는 구포댁의 몸부림을 형상화하고 있다.
- **전체 줄거리:** 곰치는 마을의 부자인 임제순에게 삿배를 빌려 만선의 꿈을 지닌 채 고기를 잡지만, 항시 빚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어느 날 부서 떼가 몰려오자 곰치는 출항을 서두르지만, 선주의 빚 독촉으로 배가 묶인다. 곰치는 모처럼의 꿈을 실현해 보기 위해 위험한 계약서에 손도장을 찍고 바다로 치닫지만 거센 풍랑을 만나 딸의 애인 연철과 아들 도삼을 잃고 혼자 돌아온다. 이 때문에 구포댁은 정신이상자가 된다. 그러나 곰치는 만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 남은 아들마저도 어부로 만들 집념을 불태운다. 이 사실을 안 구포댁은 빈 배에 갓난 아기인 아들을 태워 육지로 보낸다. 딸 슬슬이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게 되고, 또한 아버지가 파선함으로써 지게 된 빚으로 인하여 자신이 부자 노인에게 팔려갈 처지에 이르자 목을 매고 죽는다.

1. '만선'을 꿈꾸며 나갔던 바다에 자식을 잃고도 '만선'의 의지를 다지는 곰치와, 죽음의 의미로 인식되는 바다에 자식을 잃고 제정신을 잃어 가는 구포댁의 모습이 드러나 있을 뿐 '대사와 행동을 통한, 부정적인 사회 제도 풍자'는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분석

① 어부들의 꿈과 좌절 과정이 사실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② 어민들의 일상생활 용어와 전라도 사투리를 통해서 향토색과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③ 곰치의 집념과 강인한 의지가 오히려 파멸의 원인이 되는 비극적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섬세하게 그리고 있다.
④ '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하여 근대 자본주의에서 소외된 민중에 대한 수탈의 폭력성을 그렸음을 알 수 있다.

2. 곰치는 할아버지 대부터 시작된 '만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만선'은 이루지 못하고 형제들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고 현재는 자식과 사윗감마저 바다에서 죽어 슬퍼하고 있다.

오답 분석

① 아들과 사윗감이 바다에 빠져 죽은 상황에서도 '뱃놈은 그렇게 살어사 쓰는 것이여'라며 어부로서의 삶을 운명으로 여기고 있다.
② 만선을 하였지만 거센 풍랑으로 배, 고기는 물론 아들과 사윗감까지 잃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③, 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만선을 목표로 노를 잡고 풍랑이 거세더라도 고기 떼를 쫓아야 한다고 배워 만선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

3. 사건이 눈앞에서 일어나듯이 현재형으로 표현되는 것은 희곡의 특징으로, [A]는 사건이 현재화되어 있고 〈보기〉는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오답 분석

① 등장인물의 심리가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A]와 달리 〈보기〉는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 드러내고 있다.
② 〈보기〉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에 대해 서술하여 독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문 55쪽

08 시나리오의 특징과 구성 요소

개념 확인 문제 1 ⑤

1. 희곡은 연극 상연을, 시나리오는 영화 촬영 및 상영을 목적으로 하므로 둘 중 어느 갈래가 다른 갈래보다 문학적 독자성이 희박하거나 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유형 연습 문제

1 대립, 사실성 | ④

이정명 원작, 김영현·박상연 외 각색, 「뿌리 깊은 나무」

- **갈래:** 드라마 대본
- **성격:** 사실적
- **주제:**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 담긴 세종의 애민 정신
- **서술상 특징**
  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왕과 대립하는 가상의 조직 밀본을 설정하여 극의 긴장감과 재미를 더하고 있음.
  ② 훈민정음이 반포되기 전 민간에서 사용되는 것을 본 가리온의 반응을 통해 훈민정음이 얼마나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글자인지를 보여 줌.
- **해제:** 이 작품은 이정명의 동명의 소설을 드라마로 각색한 것이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글자를 창제하려는 세종과 대립하는 가상의 조직을 등장시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반포하는 일을 기획한 세종이 그러한 결정을 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어떤 역경들을 겪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교재에 제시된 부분은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 과정을 극화하는 과정에서 가상으로 설정된 밀본 조직의 우두머리이자 세종과 대립했던 인물로 설정된 가리온이 새 글자에 대해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글자임을 깨닫고 그 위력에 놀라는 장면이다.

1. ㉤은 가리온이 새 글자의 실체와 파급력을 깨닫고 새 글자의 보급을 막아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장면과 연결되어 있다. 한가 놈이 언급한 '이신적이 거래를 하기로 하였다.'는 말은 앞부분의 줄거리를 참고할 때, 재상 총재제를 관철하기 위해 새 글자의 반포를 허용하는 대신 집현전 폐지를 요구하는 거래를 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 '쿵'은 가리온이 새 글자의 반포를 막을 수 있겠다는 심정이 아니라 새로운 글자가 반포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가리온이 그 사실에 대해 놀라고 있는 장면이다.

오답 분석

① S#55에서 ㉠ '쿵'은 새 글자의 실체를 모르고 있던 가리온이 그 실체를 처음 알고 충격을 받는 모습을 연기하라는 지시문 역할을 하고 있다.
② S#55에서 ㉡과 ㉢의 '진정 이틀 사이에'는 가리온이 한 말과 연두가 쓴 글씨와 관계가 있다. ㉡은 배우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한자와 달리 새 글자는 배우기 쉽고 쓰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된 가리온이 받은 충격을 담고 있는 가리온의 대사이다. 이에 비해 ㉢은 가리온의 말을 그대로 받아쓴 연두의 글씨로, 글자를 모르던 연두가 새 글자를 배우고 익혀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백성들이 글자를 배웠을 때의 상황을 직접 드러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③ S#55에서 ㉣은 앞서의 인물들이 받은 충격을 표현하는 '쿵'과 달리 음향 효과를 사용하여 한가 놈과 가리온이 받은 충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라는 지시문 역할을 하고 있다.
⑤ ㉥은 화면 분할 기법이 사용된 부분으로 한 화면을 두세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여러 인물이나 장면을 동시에 보여 주는 연출 기법이다.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두 인물 이도와 가리온의 모습을 화면 분할을 통해 동시에 보여 줌으로써 현재 상황에 대해 두 인물이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대응하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두 인물의 갈등 구조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담은 연출 기법이 사용된 것이다.

09 수필의 효용과 필자의 태도 및 관점

개념 확인 문제 **1** 비유, 문체 | ⑤

1. (나)에서 수필은 '서른여섯 살 중년 고개를 넘어선 사람의 글'이라는 말은 수필가의 자격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향취와 여운이 숨어 있는 수필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진술이다. 이 글에서 수필가의 자격을 언급한 대목은 찾아볼 수 없다.

유형 연습 문제

1 시간, 성찰 | ⑤ **2** 의식의 흐름, 비유 | ③

윤오영, 「봄」

- **갈래:** 수필
- **주제:** 노년에 맞이하는 봄의 기쁨과 봄을 바라보는 자세
- **해제:** 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상념을 주로 노년의 시선에서 서술하고 있다. 사계절 중 하나로서의 봄과, 청춘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의 봄, 희망찬 앞날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의 봄의 의미를 결합하여 봄을 맞이하는 상념을 절묘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늙은이의 봄은 기쁨과 슬픔을 아울러 지닌 것이라고 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봄이 우리의 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해 줄 것이라고 담담하게 적고 있다.

1. '늙어서 봄을 맞이하면 앞으로 봄을 많이 못 볼까 슬프다.'는 통념 등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개성적인 시선으로 봄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 내고 있다.

이상, 「권태」

- **갈래:** 수필
- **주제:** 환경의 단조로움과 일상적인 생활의 연속에서 느끼는 권태로움
- **서술상 특징**
  ①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며 내용을 기술함.
  ② 주관적·개성적으로 대상을 바라봄.
  ③ 참신하고 예리한 비유를 사용함.
- **해제:** 이 작품은 요양차 내려가 있었던 농촌의 자연과 생활 풍경을 통해 필자가 느낀 권태를 말하고 있는 수필로,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초록색이 드문 도회에서 살던 필자는 처음 농촌에 가서 초록색의 신선함에 놀랐다. 그러나 닷새가 지나자 초록색은 필자에게 공포의 색이 되었다. 초록색은 단조무미한 채색, 무미건조한 지구의 여백으로 필자에게 받아들여진다. 필자는 도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인 농촌 생활의 단조로움을 닷새만에 관찰을 통해 밝혀 낸 것이다.

01 실전 대비 문제

현대 소설 [1~3] 희망, 성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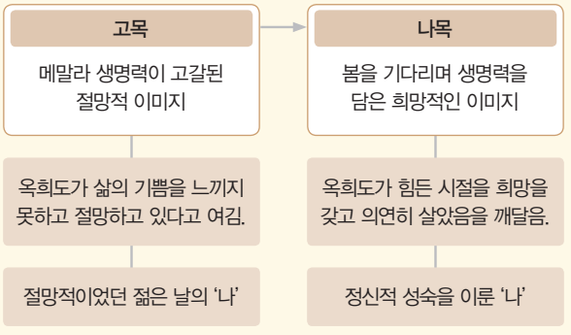
1 ① **2** ④ **3** ④

박완서, 「나목」

- **갈래:** 현대 소설, 장편 소설
- **성격:** 회상적, 고백적
-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 **배경:** 시간적–6.25 전쟁 중, 10년 후/공간적–서울
- **주제:** 삶의 시련 극복을 통한 내면의 성숙
- **서술상 특징**
  ① '나목'이라는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인간의 삶을 투영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음.
  ②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의 내면세계를 섬세하고 치밀하게 서술하고 있음.
- **해제:** '나목(裸木)은 잎이 지고 가지만 앙상히 남은 나무를 말한다. 이 작품은 황량하고 메마른 겨울을 견디며 내면의 희망을 키우는 나목과 같은 삶을 살아온 인물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 **전체 구성**

발단	6.25 전쟁 중에 두 오빠를 잃은 '나'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미군 부대 안의 초상화 가게에서 일한다.
전개	'나'는 미군들로부터 초상화 청탁을 받았는데, 어느 날 새로 온 옥희도라는 화가를 만나게 된다.
위기	'나'는 옥희도에게 끌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지만, 유부남과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한다.
절정	며칠 동안 옥희도가 가게에서 나오지 않자 '나'는 그의 집으로 찾아가고, '고목'이 그려진 그림을 보게 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나'는 황태수와 결혼한다.
결말	세월이 흐른 뒤 옥희도의 유작전에 간 '나'는 그가 그린 그림이 '고목' 아닌 '나목'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 **'고목'과 '나목'에서 알 수 있는 '나'의 인식 변화**



1. 이 글은 1인칭 내부 서술자 '나'가 옥희도의 유작전에서 「나목」을 보며 느낀 감정과 상념을 중심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분석

② 이 글은 외부 서술자가 '특정인의 관점' 즉 초점 화자의 관점에서 특정 대상을 평가하지 않고 있다.
③ 이 글은 내부 서술자가 나타나고 있으나 타인과의 갈등으로 인한 내적 고뇌를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
④ '이야기 서술 시간과 사건 진행 시간을 달리'하는 경우로

대표적인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회상하는 경우이다. 물론 이 글은 '나'가 「나목」을 보며 과거를 회상하고 있으나, 제시된 장면의 중심 사건은 '과거'가 아닌 '현재' '나'가 상념에 젖어 느낀 생각들을 서술하고 있다.
⑤ 이 글에서는 액자형 구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2. '나'가 ㉡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은 '그가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 '그가 아주 타인처럼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이므로, '나'는 '남편'에 대해 '낯섬'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과거에 자신이 강한 인상을 받았던 그림을 발견하고 그림 「나목」에 주의를 집중하게 된 것이지, '나'가 유작전에 온 가장 큰 이유가 「나목」 때문이었던 것은 아니다.
② '나목'은 잎이 다 떨어져 가지만 남았지만 생명을 가진 나무로, 이 작품에서는 현실의 고통을 인내하며 봄을 기다리는 희망을 가진 존재를 의미한다. 그리고 '온 민족이 암담했던 시절, 그 시절을 그는 바로 저 김장철의 나목처럼 살았음'을 통해 옥희도는 '나목'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옥희도가 그린 그림을 과거에는 '나목'이 아닌 '단칸방에서 본 한발 속의 고목(枯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나'는 옥희도에게서 '삶의 희망'을 느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단함과 고통스러움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③ 옥희도와 대조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다. 그리고 뒤이어 이러한 남편의 모습에 대해 '나'는 '낯설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남편의 모습을 보고 '실망감'을 느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서로의 거리를 조금도 좁히지 못한 채 바람이 간 후에도 떨고 있는 어린 나무들'은 과거 옥희도와 '나'의 관계를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둘이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마냥 떨고 있었다'는 내용은 인간은 근원적인 고독을 가진 존재라는 인식과 함께 착잡한 '나'를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학습 활동'은 작품의 모델이 된 실존 인물 '박수근'의 삶과 작품 속 인물 '옥희도'의 삶을 비교하며,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유형이다. 이 두 사람은 모두 고단한 삶 속에서도 예술적인 삶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가 이수근과 옥희도는 현실의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 내며 희망을 잃지 않는 의연한 삶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6.25 전쟁이라는 시대적 배경은 박수근과 옥희도 모두에게 해당하나, 이 작품은 '전쟁이 갖는 폭력성'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② 동일한 사물(나목)에 대한 '나'의 다른 인식은 '옥희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의미하며, '나'가 깨달음을 얻어 가는 모습을 의미한다. 그러나 작가는 이 글을 통해 '인간의 기억이 갖는 한계'를 다루고자 한 것이 아니다.
③ 〈학습 활동〉에서 작품의 모델이 된 실존 인물을 제시하고 그의 삶을 살피는 것은 작품을 '인물'과 '그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살피라는 것이다. 그런데 ③은 그림 「나목」을 시대적 현실과의 연관성을 통해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02 실전 대비 문제

본문 63쪽

고전 소설 [1~4] 풍자

1 ② 2 ④ 3 ⑤ 4 ②

박지원, 「호질(虎叱)」

- **갈래:** 한문 소설, 단편 소설, 풍자 소설, 의인 소설
- **성격:** 비판적, 풍자적, 우화적
- **제재:** 양반의 허위의식
- **주제:** 양반 계급의 허위의식과 이중적 도덕관 풍자
- **서술상 특징**
  ① 등장인물의 언행을 희화화(戱畵化)하여 풍자함.
  ② 동물에 인격을 부여한 우화적 특성이 드러남.
  ③ 「열하일기」에 수록된 작품임.
- **해제:** 이 작품은 표리부동하고 위선적인 인물로 대표되는 주인공 '북곽 선생'과 '동리자'를 통해 당시의 양반 계층의 부패한 도덕관념과 허위의식을 풍자, 비판한 조선 후기의 대표적 한문 소설이다.
  북곽 선생을 꾸짖는 범의 말은 성리학적 이념만을 중시하는 사대부의 관념성과 부도덕성을 끊임없이 비판해 온 작가 박지원의 의식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줄거리:** 어느 날 밤, 산중에서 큰 범이 부하들과 저녁거리를 의논하다가 맛좋은 선비의 고기를 먹기로 하여 마을로 내려온다. 북곽 선생은 과부 동리자와 밀회를 즐기고 있었는데, 동리자에게는 성(姓)이 다른 아들 다섯이 있었다. 아들들이 동리자의 방 안 소리를 엿듣다가, 북곽 선생의 목소리가 들리자 그를 둔갑한 여우로 단정한다. 아들들에게 쫓겨 달아나던 북곽 선생은 똥구덩이에 빠지고, 기어나오던 차에 큰 범 한 마리를 만난다. 범은 목숨을 비는 북곽 선생을 꾸짖고는 가 버린다.

1. 등장인물의 갈등 상황이 부각되고 있지 않으며 호랑이의 꾸지람으로 작품의 주제가 드러나고 있다.

오답 분석

①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③ 작품 속의 '범'이 작가의 의식을 대변하고 있는 존재이다.
④ 범을 의인화하여 등장인물의 위선적인 면을 비판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화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대화와 설명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2. 동리자의 다섯 아들은 추호의 의심 없이 북곽 선생을 도덕과 인품이 높은 훌륭한 유학자로 알고 있다. 야심한 시각에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있는 사람은 북곽 선생이 아니라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여우라고 생각하여 쫓아낸 것이다.

오답 분석

② 동리자의 아들들에게 쫓김을 당하자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날 것을 두려워해 과장된 행동을 하며 도망간 부분에서 확인된다.

3. ㉠ '유(儒)는 유(諛)'라 말함은 유학자를 말하는 유(儒)와 아첨꾼을 말하는 유(諛)가 동일하다는 말로,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언어유희의 표현이다. ⑤는 음성 상징어(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하여 생동감과 운율의 효과를 주고 있는 표현이다.

오답 분석

① 두 '이(二)'자와 외얏 '이(李)'자에서 언어유희를 찾을 수 있다.

② '사색(思索)'과 '사색(死色)'에서 언어유희를 찾을 수 있다.

③ '양반(兩班)'과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에서 언어유희를 찾을 수 있다.

④ 일종지심(一種之心), 일부종사(一夫從事), 일각일시(一角一時), 일일칠형(一日七形)의, '말재롱'하듯 일(一)자를 두운으로 반복한 부분에서 언어유희를 찾을 수 있다.

4. ⓐ는 인간들이 '오륜, 사강' 등 도덕률을 입으로만 말하고 지키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는 '포승줄과 먹실, 도끼, 톱 같은 형구(刑具)를 매일 쓰기에 바빠 겨를이 나지 않는데도 죄악을 중지시키지 못하는구나.'에서 확인 가능하며, ⓔ는 '범의 세계에서 원래 그런 ~ 어질지 않느냐?'라고 말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 분석

ⓑ의 내용은 전혀 관련이 없고, ⓓ의 경우 인간이 도덕률을 지키지 않음을 문제삼고 있을 뿐, 도덕률의 엄격함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03 실전 대비 문제

본문 66쪽

시나리오 [1~3] 일기, 일화

1 ② 2 ④ 3 ⑤

하근찬 원작 · 이영재 각색, 「내 마음의 풍금」

- **갈래:** 시나리오
- **성격:** 서정적, 낭만적, 향토적
- **배경**
  - 시간: 1960년대
  - 공간: 강원도 산골 마을
- **주제:** 순수한 첫사랑의 설렘과 애틋함
- **서술상 특징**
  ① '일기'를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② 향수를 자아내는 토속적인 소품과 일화들을 제시함.

- **해제:** 강원도 산골의 늦깎이 여학생인 홍연의 순수한 사랑과 성장을 다룬 각색 시나리오이다. 토속적인 산골 마을의 배경과 초등학교라는 동심의 공간이 조화를 이루며, 홍연의 어수룩한 사랑의 표현들이 순수성을 강화하고 있다.
- **전체 줄거리:** 강원도 산골 마을 산리에 사는 열일곱 살 소녀 홍연은 늦깎이 초등학생이다. 방과 후 자기보다 대여섯은 어린 동네 동생들과 고무줄놀이를 하고, 젖먹이 동생을 돌보는 것이 홍연의 일과이다. 어느 날 동네 어귀에서 산리 초등학교로 부임한 스물한 살의 총각 선생님 수하와 마주치고, 첫눈에 마음을 빼앗긴다. 수하는 홍연의 담임이 되고, 홍연은 매일 매일 일기에 선생님의 이야기를 쓴다. 하지만 이미 동료 양은희 선생님을 짝사랑하고 있는 수하는 홍연을 제자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수하와 은희의 다정한 모습에 질투를 느끼는 홍연은 양은희 선생이 약혼자와 함께 유학길에 오르기 위해 떠나자 내심 기뻐한다. 한편 수하는 실의에 빠진다. 다사다난한 일 년의 세월이 지나 수하는 학교를 떠나게 되고, 홍연은 떠나는 수하에게 특별한 사연이 담긴 레코드판을 선물한다. 훗날, 홍연과 수하가 결혼하여, 그 레코드판의 음악을 듣는다.

1. 이 글은 홍연의 일기 내용과 그것을 읽은 교사 수하의 모습을 시작으로, 홍연의 짝사랑과, 이를 알아 주지 않는 교사 수하에 대한 실망감이 점점 고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분석

① 홍연은 일기에 쓰인 수하의 메모를 보고 난 후, 설렘이 실망감으로 변화하였다.

③ '수하 하숙방', '홍연네 안방', '수하 하숙방', '홍연네 마루', '홍연네 뒷마당' 등으로 장면이 자주 전환되면서, 홍연, 홍연 모, 수하 등 인물들의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④ '어린이 잡지 『새벗』', '전축', '재봉틀' 등은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로, 1960년대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⑤ '일기'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수하'에 대한 '홍연'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 [A]~[D]는 '홍연'의 내레이션으로 '홍연'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는 구실을 한다. 특히 자신의 마음을 알아 주지 않는 '수하'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남동생들과 수탉에 전이시키는데, 이들을 괴롭히는 '홍연'의 모습은 미성숙한 어린 소녀의 모습을 보여 줌과 동시에 관객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엄마의 남아 선호 사상에 대해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3. S# 65와 S# 66의 인물들이 보여 주는 행위는 농촌에서의 일상적 삶이다. 그러므로 이 장면에서 '아이들'과 '수탉'을 역동적으로 묘사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관객으로 하여금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잔잔하게 촬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S# 65와 S# 66에서 중요시하여야 할 것은, 농촌의 일상이 아니라 '홍연'의 내적 독백이다. 그러므로 연출자는 장면에 대한 묘사보다는 '홍연'의 내레이션을 통해 심리

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오답 분석

① '홍연의 일기장. 수하, 문득 흥미 느끼고 읽기 시작하는데'로 미루어 보아, '수하'는 평소 '홍연'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읽기 시작하는데 낯을 붉힌다. 헛웃음을 웃다가 미묘한 표정'으로 보아 '홍연'에 대한 미묘한 심리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수하'에 대한 '홍연'의 감정은 일기장에 적혀 있는 수하의 메모를 보기 전과 후로 나뉜다. 그러므로 ②는 적절한 연출 방향이다.

③ '홍연 모'는 '홍연'이 왜 일기장을 보다가 표정이 바뀌는지, 이불 밑으로 들어가는지, 동생들을 밀쳐내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홍연 모'는 겉으로 드러난 상황인 '홍연'이가 동생들을 밀쳐내는 부분만을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이다.

④ '웃음을 터뜨리다, 심각한 얼굴을 했다 하'는 수하의 모습을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수하'의 얼굴을 중심으로 촬영하여 표정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Ⅲ 독서(비문학)

본문 70쪽

01 글의 구조 이해

개념 확인 문제 **1** 반박, 인용 | ②

1. 이 글의 서론에는 세계 단일 언어 주장에 대한 반대 입장이 분명히 드러나 있으나, 글을 쓰게 된 목적이나 동기는 드러나 있지 않다.

유형 연습 문제

1 과정, 원리 | ⑤

「역삼투압 정수기의 원리」

- **주제:** 역삼투압 정수기의 원리
- **서술상 특징**
  ① 정의와 과정의 방법으로 대상을 설명함.
  ②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함.
- **해제:** 이 글은 현재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정수기의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글이다. 글에 따르면 시중의 정수기는 저농도 용액이 고농도 용액 속으로 이동하는 삼투압의 원리를 역으로 응용한 '역삼투압 방식'을 채택한다. 아주 미세한 구멍이 촘촘하게 뚫려 있는 멤브레인 필터에서 걸러진 물은 세균이나 중금속을 포함한 이온 물질을 99% 가까이 제거함으로써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역삼투압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압의 펌프 작용이 필요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최근의 저압형 역삼투압 정수기임을 밝히고 있다.

1. ⑤ (마)는 새로운 대상(저압형 역삼투압 정수기)을 제시하고 그 대상의 장단점을 소개하고 있다.

오답 분석

① 생수 사업의 번창과 정수기의 사용의 일반화를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② 역삼투압 정수기의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삼투압 현상'을 먼저 설명하고 있다.

③ 역삼투압 정수기의 작동 원리와 단계적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④ 역삼투압 정수기의 장점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문 72쪽

02 글의 표현 및 전개 방식

개념 확인 문제 1 ④

1. 이 글은 조선 시대 붕당 정치의 장점과 단점을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유형 연습 문제

1 분류, 차이, 과정 | ③

손영운 · 김은선, 「스포츠 속에 과학이 쏙쏙」

- **주제:** 근육을 구성하는 근섬유들의 특징과 근육 수축의 원리
- **서술상 특징**
  ① 근섬유를 속근섬유와 지근섬유로 분류하여 설명함.
  ② 속근섬유와 지근섬유의 차이를 대조하여 설명함.
  ③ 근육이 수축하는 원리를 과정의 방법으로 설명함.
- **해제:** 이 글은 사람의 몸에 있는 근육을 구성하는 근섬유를 속근섬유와 지근섬유로 분류하고, 두 근섬유의 특징과 근육 수축이 일어나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 이 글에서는 유사한 대상에 빗대어 현상의 원리를 밝히는 '유추'의 설명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분석

①, ② 3문단에서는 질문을 통해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 다음,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④ 2문단은 지근섬유와 속근섬유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두 섬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대조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⑤ 1문단에서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 근섬유의 개념과 근섬유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본문 74쪽

03 사실적 읽기

개념 확인 문제 1 일, 대조 | ⑤

1. 이 글은 우리가 보통 '일'이라 부르는 활동을 '작업(作業, work)'과 '고역(苦役, labor)'으로 구분한 뒤, 두 가지 활동이 모두 인간의 노력, 땀과 인내를 수반하는 활동이며, 어떤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공통점으로 소개하고 있다. 한편 전자를 '자의적', '창조적'인 활동으로 본 반면 후자는 '타의적', '기계적' 활동으로 보아 작업과 고역의 차이점을 대조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 일을 '작업'과 '고역'으로 분류하는 일의 어려움이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

유형 연습 문제

1 적용, 귀납적 | ④

최인철, 「동메달이 은메달보다 행복한 이유」

- **주제:** 자신의 객관적인 성취가 가상의 성취와 비교하여 그보다 높을 때 행복 점수가 높아짐.
- **서술상 특징**
  ① 심리학적 주제를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사례에 적용하여 알기 쉽고 흥미롭게 설명함.
  ② 사례(실험)를 바탕으로 그 원인을 분석해 내는 귀납적 구조를 취함.
- **해제:** 최인철의 『프레임』이라는 책에 실린 글의 일부이다. 은메달 수상자와 동메달 수상자의 경기 직후 표정과, 시상식 장면, 인터뷰 분석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객관적인 성취가 가상의 성취와 비교하여 그보다 높을 때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는 심리학 주제를 알기 쉽고 흥미롭게 설명한 글이다.
- **프레임(Frame):** 인간이 성장하면서 생각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생각의 처리 방식을 공식화한 것을 뜻함. 프레임은 어떤 조건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프레임을 '마음의 창'에 비유하곤 함. 즉, 어떤 대상 또는 개념을 접했을 때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바뀌기도 함.

1. 얼굴 표정 분석은 두 번의 측정 시기, 즉 메달 색깔이 결정되는 순간과 시상식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에서는 얼굴 표정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본문 76쪽

04 추론적 읽기

개념 확인 문제 1 인도주의적, 정의 | ④

1. 한 나라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도주의적 목적에서 인접국의 군사 개입을 허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목적'은 A국 내의 선량한 국민 다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A국 내의 B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은 추론이다.

오답 분석

①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국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이지만,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는 군사 개입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부가 자국민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 간의 합의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자국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여 인접국이 개입하였다면, 이는 '인도주의적 개입'으로 국제 관계에서 용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국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③ 이 글에서 인도주의적 개입은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국제 사회에서 규제하는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므로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인접국이 군사 개입을 한 목적은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인권 침해와 관련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군사를 주둔할 명분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주둔을 한다면, 이것은 국제 관계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형 연습 문제

1 경어체, 사례 | ②

김두식, 「무죄의 추정」

- **주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 고발 및 무죄 추정 원칙의 준수 촉구
- **서술상 특징**
  ① 현실에서 흔히 간과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② 경어체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전문적인 법률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 친근한 느낌을 줌.
  ③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도움.
- **해제:** 이 글은 법이란 무엇인지를 쉽게 풀어서 설명한 책인 『헌법의 풍경』 중 「7장 말하지 않을 권리, 그 위대한 방패」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언론 보도에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위배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1. 헌법 제27조 제4항은 죄의 유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무죄로 취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피의자가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해야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기관이 피의자가 유죄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오답 분석

① 2문단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비로소 무죄 추정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서 죄의 유무를 확정 짓는 기관은 대법원임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의 '앞서 말한 화면들은 하나같이 경찰서 안에서 형사들의 과도한 '협조'를 받으며 만들어진 것입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1문단에 제시된 일반인들의 반응이나 3문단에서 언급한 언론의 행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이 용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④는 적절한 내용이다.
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본문 78쪽

05 비판적 읽기

개념 확인 문제 **1** 인용 | ⑤

1. 몬타나리 교수는 세계적인 역사학자이므로 주장에 신뢰성을 줄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몬타나리 교수는 자신의 의견을 근거로 하였으므로 내용의 정확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②, ③ 파스타의 기원에 대한 가설이므로 보편적인 가치관이나 사회·문화적 상황에서의 수용 여부와는 무관하다.
④ 자료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유형 연습 문제

1 문화적, 균형 | ⑤

강윤재, 「유전자 변형 식품의 두 얼굴」

- **주제:**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상반된 측면의 소개와 관심 촉구
- **서술상 특징**
  ① 과학 기술에 대해 사회적, 문화적 시각으로 접근함.
  ② 상반된 두 관점에 대해 비교적 균형 있는 태도를 유지함.
- **해제:** 유전자 변형 식품을 소재로 하여 안전성 논란에 대한 대조적 입장을 비교적 균형 있게 전달한 글이다.

1. 이 글은 논쟁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고 있을 뿐 의견을 절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분석

①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미국과 유럽 연합의 대조적인 시각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②, ③ 논의의 대상은 국제 정치 및 경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이해관계와 평가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판단할 수 없음이 드러나 있다.
④ 글쓴이는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찬반 의견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비교적 객관적인 태도로 전달하고 있으므로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본문 80쪽

06 창의적 읽기

개념 확인 문제 **1** 지배적 이념, 문제점 | ④

1. 매스 미디어를 기득권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매스 미디어에서는 이런 기득권층이 지닌 기존의 지배적 이념을 담아낸다고 했으므로 매스 미디어가 대중의 이념을 생산자가 수용한 결과라는 것은 글쓴이의 관점과 거리가 멀다.

오답 분석

① 첫째 문장에서 매스 미디어 생산 과정에 이념적 동기가 작용한다고 말하고 있다.

② 기득권층이 매스 미디어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이념을 담아낸다고 말하고 있다.

③ 매스 미디어 종사자들은 기존의 가부장제나 자본주의 이념을 그대로 담아내면서 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⑤ 매스 미디어를 소유하고 있는 기득권층이 그들의 이념을 담아내려 하기 때문에 매스 미디어 생산의 주체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유형 연습 문제

1 구체적 사례 | ②

「법률 해석」

- **주제:** 법률 조항을 해석하는 방식과 그것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
- **서술상 특징:** 어려운 법률 개념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함.
- **해제:** 이 글은 법률 해석의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법률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1. '반대 해석'은 법률 문구에서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ㄱ은 '대문 앞에 자동차를 세우지 마시오.'라는 문구를 보고 '대문 앞이 아닌 곳'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므로 주차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는 반대 해석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ㄹ은 '자동차가 아닌 것'이 대문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대문 앞에 자동차가 아닌 것은 세워도 된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역시 반대 해석을 한 것이다.

오답 분석

ㄴ에 '담 쪽도 곤란한 거 아냐?'를 언급한 것은 대문 앞에 주차하는 것과 담 쪽에 주차하는 행위를 모두 동일하게 길을 막는 결과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유추 해석을 한 것이다.

ㄷ은 '대문을 드나드는 데 불편해서 붙였다고 봐야 돼.'라는 진술로 볼 때 진술의 배경이나 의도를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ㅁ은 '대문 앞에 자동차를 세우지 마시오.'라는 진술에서 자동차뿐 아니라 오토바이도 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그 의미를 확장한 것으로 확장 해석에 해당한다.

본문 82쪽

07 주제 통합적 읽기

개념 확인 문제 **1 변화 과정, 생물학** | ⑤

1. ㉤은 '인간이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기억하고 의식하는 모든 행동은 생물학적인 뇌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낭만적 사랑 또한 1.3 킬로그램에 지나지 않는 이 단백질 덩어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신경 전달 물질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사랑은 생물학적 뇌 활동에 의한 욕구나 동기에 가깝다고 재구성해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주제 통합적 읽기에서 다양한 글을 읽을 때 반드시 지녀야 할 '객관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글 읽기에 해당한다.

유형 연습 문제

대비, 예 | **1** ② **2** ④

(가)「음악에 대한 『여씨춘추』의 입장」

- **주제:** 음악에 대한 『여씨춘추』의 주장 및 입장
- **서술상 특징:** 화제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 대비되는 견해를 제시함.
- **해제:** 이 글에서는 좋은 음악이란 어떤 음악인가에 대해 『여씨춘추』 이전의 음악에 대한 견해와 『여씨춘추』에 나타난 음악에 대한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좋은 음악의 조건과 선왕의 음악을 좋은 음악이라 여긴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나)「음악적 아름다움」

- **주제:** 음악적 아름다움에 대한 조성 음악과 표현주의 음악의 입장
- **서술상 특징**
  ① 화제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 대비되는 견해를 제시함.
  ② 특정 음악 작품을 예로 제시하고 있음.
- **해제:** 이 글에서는 '음악적 아름다움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가 나타나 있다. 17세기 이후 서양 음악의 기본틀이었던 조성 음악의 입장에서 음악적 아름다움의 본질은 규칙적인 화성에 의한 것이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등장한 표현주의 음악은 불협화음은 반드시 협화음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견해에서 탈피하여 '무조 음악'을 탄생시켰다고 소개하고 있다.

1. ⓐ (가)와 (나)의 글에는 각각 음악에 대한 견해가 나타나 있다. (가)는 좋은 음악이란 어떤 음악인가에 대해 『여씨춘추』 이전의 음악에 대한 견해와 『여씨춘추』에 나타난 음악에 대한 견해가 소개되어 있다. (나)에는 '음악적 아름다움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가 나타나 있다. 17세기 이후 서양 음악의 기본틀이었던 조성 음악의 입장에서 음악적 아름다움의 본질은 규칙적인 화성에 의한 것이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등장한 표현주의 음악은 불협화음은 반드시 협화음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견해에서 탈피하여 '무조 음악'을 탄생시켰다고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음악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 그 견해와 대비되는 견해를 제시함'이라고 한 것은 적절한 평가이다.

ⓑ (가)는 『여씨춘추』에 나타난 음악에 대한 견해를 소개하는데 주안점이 맞춰진 글이다. 특히 좋은 음악의 조건과 선왕의 음악을 좋은 음악이라 여긴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나)는 표현주의 음악인 '무조 음악'의 사례로 쇤베르크가 발표한 '달에 홀린 피에로'를 소개하고 있어 적절하다.

ⓒ (가)와 (나)는 모두 '음악'이라는 화제에 집중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드러낸 글이다. 따라서 '(나)와 달리 (가)는 음악을 다른 예술 갈래와 비교함.'이라는 언급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와 ⓑ에 대한 평가는 '적절'이 ⓒ에 대한 평가는 '부적절'이 타당한 평가이다.

2. 주제 통합적 읽기의 마지막 단계는 '독서 자료 재구성하기'이다. 이는 여러 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자신만의 주제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읽기 과정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자신의 관점에 따라 정리하여 화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립하는 과정이다. '독서 활동 과정'의 '재구성하기' 내용을 보면, '분석적 읽기'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써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가), (나)를 읽고 주제, 관점, 내용 등을 비교하여 종합하기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좋은 곡을 작곡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 제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 맞게 쓴 것은 ④라 할 수 있다. ④의 '두 글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었다.'는 (가), (나)를 읽고 관점의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고, '작곡을 할 때 한 가지 기준이나 방법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해 보아야겠다.'는 좋은 곡을 작곡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 언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01 실전 대비 문제

본문 86쪽

사회 [1~3] 개념, 위법성

1 ③ 2 ⑤ 3 ④

이연구, 「굿즈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 **주제:** 굿즈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으로 본 저작권의 개념과 판단 기준
- **서술상 특징**
  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음.
  ② 법령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독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음.
- **해제:** 이 글은 요즘 발생하는 '굿즈의 저작권 침해' 현상을 소재로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저작권의 개념과 위법성 판단 기준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1. 2문단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한 '저작권법'과 '판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저작권법과 판례의 차이'와 '법률적 구속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분석

① 3문단에서 저작권 침해의 핵심적인 기준은 대상물에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침해 저작물과 피침해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비교했을 때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② 5문단에서 '독특한 형상으로서 창작자~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도 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1문단의 '선행 회사가 판매하는 인기 굿즈 상품을 보고, 비슷하게 제작해 판매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5문단의 '저작권 이슈 내지 분쟁이 발생한 기업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주장하거나 판단 받기에 앞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저작권법의 보호가 가능한지부터 순차적으로 검토해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5문단의 '저작권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타인에 의해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기업이 직접 해당 굿즈의 창작적인 표현 방식을 특정하거나, 실질적인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문장을 통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작권자가 침해 여부를 판단해서 이를 증명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4문단으로 보아, 형태적 유사성만으로는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물에서 제외된다. 그러므로 '창작물 일체를 보호'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이다.

② 3문단에서 '창작성이 없는 부분만 유사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과 4문단의 '형태적 유사성만으로 양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볼 때 '상품 간의 형태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잘못된 이해이다.

③ 2문단으로 보아,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한다. 그리고 판례로는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슬픔'이라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우는 행위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2문단의 '판례'를 보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창작자가 구상한 아이디어나 계획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참고로 '아이디어나 계획'을 보호하는 법률은 '특허법'에 해당한다.

3. 2문단에서 저작권 판단 기준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라고 언급하였다. 수학 강사는 '인형'을 표현 형식으로 사용하였고, 다른 강사는 '애니메이션'을

표현 형식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두 창작물 사이에서의 실제적 유사성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저작권에 침해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학생들의 호응도 즉, 구매자의 호응도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② '수학 강사'가 개념을 가르치기 위하여 겨울 왕국 '인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겨울 왕국 '인형'에 '창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저작권에 침해된다고 할 수 있다.

③ '1+1=2'라는 개념은 4문단의 '대상물의 보편적 특징이나 속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4문단으로 볼 때, 동일한 캐릭터를 사용한 것은 '형태적 유사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02 실전 대비 문제

본문 88쪽

기술 [1~3] 나틈, 빗대어

1 ③ 2 ② 3 ③

「나틈 공법」

- **주제:** 나틈 공법의 출현 배경과 기본 원리
- **서술상 특징:** 설명 대상의 원리를 친근한 대상에 빗대어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도움.
- **해제:** 이 글은 터널 건설 기술의 발전 과정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가운데, 1960년대 초에 출현한 나틈 공법의 이론적 배경과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터널 건설 기술은 19세기 동력식 착암기와 다이너마이트와 발명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지보공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나틈 공법으로, 이 공법은 터널을 붕괴시키려는 토압의 일부가 역으로 터널 공간을 지탱하려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이용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글쓴이는 이러한 나틈 공법의 원리를 일상적이고 친근한 대상인 두꺼비집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1. 5문단에서 나틈 공법에서는 '지보공을 대신하는 피막을 형성시킨다'고 했으므로 지보공과 같은 구조물이 불필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2문단에서 지보공은 '터널 내부 공간이 주변의 토압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지지하는 일'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보공은 토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토압을 견디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1문단에서 19세기 말 터널 기술의 발전이 있기 전까지는 '암반 면을 불로 가열한 다음 물을 뿌리고 급냉시켜 암석에 금이 가게 하여 부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19세기 이전에는 암반의 온도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터널을 건설했다고 볼 수 있다.

② 5문단에서 '나틈 공법에는 주변의 토압에 대항하기 적합한 역학 구조인 말발굽 형태의 터널 모양이 채택된다.'고 하였다.

④ 2문단에서 초기에는 '목재 지주식 지보공'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이 기술은 규모가 큰 터널의 공사에는 부적합해서 이후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철재 지보공'이 등장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목재 지주식 지보공보다 철재 지보공이 더 큰 규모의 터널을 공사하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⑤ 6문단에서 오늘날에는 도로를 건설할 때 산을 피하지 않고 터널을 건설하는 것이 선호되고 있는데, 이는 '건설 경비를 대폭 줄이고 공사 기간을 단축시킨 나틈 공법의 공로'라고 하였다.

2. 3문단에서 토압의 재분배는 터널을 파내 공간이 생기면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나틈 공법을 사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토압의 재분배는 일어나게 된다. 나틈 공법을 사용하기 전에 지보공을 사용한 이유는 토압의 재분배에 대한 과학적 발견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기존 터널의 갱 벽이 단단하게 굳어진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갱 벽이 토압에 대항해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틴 증거에 해당한다. 이 증거가 바로 토압의 재분배가 일어나 토압의 일부가 터널 공간을 지탱하려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토압의 재분배가 일어나면 터널을 붕괴시키려는 토압의 일부가 터널 공간을 지탱하려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터널을 붕괴시키려는 힘과 터널을 지탱하려는 힘이 서로 대립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④ 오스트리아의 라브세비치는 토압의 재분배와 관련된 사실을 이용하여 나틈 공법을 개발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토압의 재분배가 일어남을 알게 되면서 새로운 터널 공법을 개발할 수 있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나틈 공법은 '터널에 작용하는 토압의 일부가 재분배되면서 형성된 터널을 지탱하려는 힘을 인간이 조금만 보강해 주면 터널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ㄴ. ㉮에서 '종이'와 내벽을 밀착시키는 것은, ㉯에서 터널 내벽 표면에 급결 콘크리트를 고압으로 뿜어 피막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ㄷ. ㉮에서 두꺼비집을 '둥글게' 파는 것과 ㉯에서 말발굽 형태의 터널 모양을 채택하는 것은 '둥근 모양'이 토압에 대항하기에 적합한 역학 구조라는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

오답 분석

ㄱ. ㉮에서 '축축한 모래'를 이용하는 것은, ㉯에서 '액체 시멘트'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나틈 공법에서는 터널 천장과 벽에 액체 시멘트를 분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입하여 터널 주위의 지반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다.

ㄹ. ㉮에서 모래 더미를 '쌓은' 것과 ㉯에서 터널이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보강하는 것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 모래 더미는 터널을 건설하기 전의 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03 실전 대비 문제

본문 90쪽

인문 [1~4] 기술, 윤리

1 ② 2 ① 3 ⑤ 4 ①

한국철학사상 연구회, 「사이보그화, 몸이 기술의 대상이 되어도 좋은가」

- **주제:** 인간의 사이보그화의 특징과 논란
- **서술상 특징**

① 쟁점에 대한 상반된 견해와 함께 권위자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음.
② 사회 현상을 윤리·철학적 의미로 확장하고 있음.

- **해제:** 이 글은 '인간의 몸이 기술의 대상이 되어도 좋은가'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통해 과학의 윤리적 인식을 다루고 있는 글이다. '인간의 사이보그화'라는 시사적인 쟁점을 통해 인간의 대상화 또는 수단화에 대해 윤리적·철학적으로 접근하여 논의를 풀어나가고 있다.

1. 1문단에서 글쓴이는 '사이보그 시대에 몸이 기술의 대상이 되어도 좋은지, 이와 관련한 입장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한 후, '몸의 사이보그화에 조건부로 찬성하는 입장'과 '몸에 대한 기술의 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각 입장에 대한 근거를 분석적으로 제시한 후 대표적인 학자의 견해를 통해 각각의 입장을 보완하고 있다.

오답 분석

① 이 글은 주장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근거를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근거를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사이보그'의 의미를 분석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이것이 갖는 사회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④ 상반된 관점을 설정하고 있으나, 각각의 관점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⑤ 이 글은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낸 후 논의 쟁점에 대한 각각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을 뿐 어떤 현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은 2문단 '조건부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에서 알 수 있다. ㉡은 7문단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가시적인 이익을 바라는' 것은 '인간의 책임을 넘어서는 일'에서 ㉡이 가시적 이익보다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은 기술이 생명을 가진 것, 더 나아가 인간 자신에게 유토피아 전망보다 위험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반대하는 것인데 이러한 입장 역시 삶의 안정성이라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분석

② ㉠은 기술이 인간의 더 나은 진보를 위해 관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은 기술이 생명을 가진 것, 나아가 인간에게까지 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
③ ㉠이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유기체의 이분법적 관계에서 벗어나 더 나은 진보를 이룰 수 있다'(3문단)고 보는 반면, ㉡은 '각자가 지닌 현재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은 '실존'은 한계 상황에 대한 처절한 인식에서 나오며 인간이 기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6문단)고 본다.
④ ㉠은 3문단에서 사이보그화 기술을 '인류 전체, 특히 여성이나 동성애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4문단에서는 '몸 때문에 열등한 위치에 놓인 여성들에게 양성평등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은 7문단에서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가시적인 이익을 바라는 것은 인간의 책임을 넘어서는 일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 공감할 수 있으나, ㉡은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볼 수 있다.
⑤ ㉠은 기술이 가져다주는 이익은 몸과 기계를 별개로 보는 기술에 대한 혐오에서 벗어날 때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은 몸을 실험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 생명권의 문제, 윤리적 문제를 들어 부정적으로 본다.

3. 〈보기〉는 기계를 통해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불리한 여건에서 능력을 한껏 향상시키려는 이들이 전하는 '인간 승리'의 사례이다. 그러나 6문단에 '몸의 사이보그화는 인간의 실존적 조건에 위배된' 것이며, '실존이란 지금 그리고 여기라는 각자가 처한 한계 상황 내의 존재를 의미'하므로, 사이배슬론 대회를 사이보그화된 인간이 자신의 실존적 자아를 찾는 경기라고 할 수는 없다.

오답 분석

① 3문단에서 글쓴이는 '기계들은 이제 우리에게 부가적인 장치들이고 친근한 구성 요소이며 자아의 일부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멀린스는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계를 자신의 몸에 부착하였다. 그러므로 멀린스는 기계를 자아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② 멀린스는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술의 힘을 빌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델과 영화배우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②는 적절한 반응이다.
③ 멀린스를 부러워한 동료는 멀린스가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의 도움을 받아 타인보다 우월한 위치에 섰다고 판단하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6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인간은 기계와 달리 자신의 '한계 상황에 대한 처절한 인식에서 나오는' 실존적 존재이며, 이는 기계가 넘어설 수 없는 것이라고 조언할 수 있을 것이다.
④ 멀린스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테드에서 강연할 수 있었던 것은 기계의 힘을 받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4. 〈보기〉에서 니체는 인간은 어떤 동물보다 확정되어 있지 않고 대담하고 혁신적이며, 운명을 거역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요나스로 대표되는 사이보그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몸의 사이보그화는 인간의 실존적 조건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니체는 요나스에게 인간의 '실존'에 대해 '인간은 새로운 형식을 추구하기 위하여 위험을 안고 모험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답 분석

② 인간이 사이보그화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풍족함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신체적·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③ 〈보기〉에서 인간이 '변덕스럽'다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의미이지,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자주 바뀌는 존재라는 의미는 아니다.

④ 〈보기〉에서 니체가 '인간이란 자기에 대한 위대한 실험가'라고 한 것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나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이지, 자신의 몸을 실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⑤ 〈보기〉에서 니체가 '모든 실존 방식은 '미래 때문에' 다시금 파괴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것은, 인간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현재를 파괴한다는 의미이지, 미래 세대와 생태계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전 대비 문제

본문 93쪽

과학+과학 [1~3] 극지방, 순환, 근거, 반박

1 ④ 2 ③ 3 ④

(가) 박미용, 「급격한 기후 변화는 정말 일어날까」

- **주제:** 급격한 기후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접근
- **서술상 특징**
  - ① 구체적 과학 지식을 통해 주제에 분석적으로 접근함.
  - ②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의 타당성을 높임.
- **해제:** 급격한 기후 변화의 원인과 그 가능성을 전 지구적 해수 순환의 원리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전 지구적 해수 순환이 북대서양의 차고 염분이 많은 바닷물이 심해로 가라앉아 심층수를 이루며 적도로 이동하고, 적도로 이동해 따뜻해진 물은 다시 극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차고 염분이 많아져 심층수가 되는 순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해수의 순환은 북대서양의 바닷물이 염분의 농도가 높아 가라앉아야 하는데, 빙하가 녹아 염분의 농도가 낮아지면 북대서양의 바닷물이 가라앉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해수 순환이 멈추게 되면 급격한 기후 변화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나) 김해동, 「지구 온난화 경고의 비과학적 면모」

- **주제:** 영화의 내용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고 오류가 있으며 실현 가능성이 없음.
- **서술상 특징**
  - ① 영화가 제시하는 과학적 근거를 분석한 후 나온 오류를 구체적 자료를 써서 반박함.
  - ②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 주장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함.
- **해제:**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영화 「투모로우」와 「불편한 진실」을 소재로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멕시코 만류가 정지해 유럽 대륙에 소빙하기가 온다는 내용에 대해 그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한 글이다. 빙하가 녹아내리면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멕시코 만류가 정지하여 유럽 대륙에 소빙하기가 도래한다는 예측에 대해 그러한 예측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반박하고 있다.

1. (가)와 (나)는 독자가 궁금할 만한 내용을 먼저 질문 형식으로 제시한 후, 이어 그 답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분석

① (가)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나)에서 보고 자료를 인용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②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풀이하는 개념 정의는 나타나지 않으며, 핵심 개념의 설명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서로 다른 이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나)의 경우이다. (나)의 경우도 차이점을 드러내기보다 반론을 제기하는 논지 전개를 보이고 있다.

⑤ 관련된 이론들의 역사적 고찰은 나타나지 않는다.

2. 2문단에서 전 지구적인 해수 순환을 통해서 세계의 기후를 조절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해수의 순환은 기후의 급격한 변화를 막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4문단을 통해 북대서양 극지방의 바닷물이 가라앉는 이유는 염분의 농도가 높고 기온이 낮아서 밀도가 높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극지방이 적도 지방보다 바닷물의 밀도는 높다.

② 3문단에서 '영화에서는 전 지구적인 해수 순환의 변화가 지구 온난화로 일어난다' 하였고 과학자들의 견해도 이와 일치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3문단을 통해 해수의 순환에 대한 예측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⑤ 5문단의 '높은 염분 덕분에 주변보다 무거웠던 바닷물이 염분 농도가 낮아지면서 가라앉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를 통해 염분의 농도가 낮아지면 해수 순환이 멈출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3. (나)의 견해에 따르면 (가)가 주장하는 전 지구적 해수 순환이 정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빙상이 해수와 혼합될 시간이 없을 만큼 빠르게 녹아내려야 하는데, 그 양은 1년

에 약 3조 톤이라는 임계점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일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북극권 빙하가 다 녹으려면 1,000~2,000년이 필요하다.' 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견해를 볼 때, ⓐ가 정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가)의 4문단에서는 전 지구적 해수 순환이 극지방의 바닷물이 염도가 높고 차가워지면 가라앉아 심층수를 이루고 서서히 적도 지방으로 이동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가)의 2문단에서는 전 지구적 해수 순환은 적도 지방의 따뜻한 바닷물이 극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열을 잃고 증발되어 차고 염분이 많은 극지방의 바닷물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③ (가)의 3문단에서 전 지구적인 해수 순환이 멈춰졌을 때 급격한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전 지구적 해수 순환 변화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일어난다고 하고 있다.

⑤ (나)의 4문단에서 설사 빙하가 녹아내린다고 해도 '빙상이 해수와 혼합될 시간이 없을 만큼 빠르게 녹아내려야 하는데, 그 양은 1년에 약 3조 톤이라는 임계점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을 들어 전 지구적 해수 순환이 멈추는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았다.

05 실전 대비 문제

본문 96쪽

인문 + 예술 [1~3] 사례, 분류, 산대, 인형

1 ④ 2 ⑤ 3 ①

(가) 전경욱, 「전통 공연 예술과 그 현대적 의미」

- **주제:** 조선 시대 공연 예술
- **서술상 특징**
  - ① 조선 시대 공연 예술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얻고 있음.
  - ② 분류의 방법으로 공연 예술을 소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음.
  - ③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조선 시대 공연 예술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 **해제:** 우리나라 전통 공연 예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조선 시대 공연 예술이 연행되었던 사례들과 이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을 통해 전통 공연 예술이 어떻게 연행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전통 공연 예술의 연행을 설명하기 위해 분류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역사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 연행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1725년 사신으로 왔던 아극돈의 「봉사도」를 통해 예산대의 모습을 소개하는 등 조선 시대 전통 공연 예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나) 박세연, 「조선 시대 산대 기관 인형 연구」

- **주제:** 「봉사도」에 나타난 예산대의 모습
- **서술상 특징**
  - ① 「봉사도」에 실린 시와 예산대의 비교를 통해 예산대의 구조와 기능을 추정함.
  - ② 역사적 사료와 관련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3국의 문화적 교류를 밝힘.
- **해제:** 1725년 조선에 사신으로 왔던 아극돈의 「봉사도」를 소재로 전통 공연 예술 중 하나인 예산대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봉사도」에 실린 시와 「봉사도」를 비교하며 산대의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그림에서 추정 가능한 산대의 모습과 각 부분의 구성 그리고 작동 원리를 소개하고 있다. 인형극에 나오는 인형들이 지니는 특징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3국의 교류를 추정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각국의 공연 예술의 영향 관계와 각각의 독자성과 고유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1. (가)에서 '연극에는 산희(山戱)와 야희(野戱)의 두 부류가 있는데'를 통해 글의 전개에 '분류'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나)에서는 「봉사도」를 분석적으로 살펴보고, 그 안에 등장하는 산대에 관해서도 분석적 방법으로 글을 전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오답 분석

① (가)에서는 17세기 유득공과 18세기 유몽인의 저작을 근거로 삼아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고, (나)에서는 「봉사도」와 「봉사도」에 실려 있는 시를 연결 지어 설명하여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② (나)는 (가)의 산대에 관해 「봉사도」에 나온 예산대의 모습을 「봉사도」에 실린 시와 연결 지어 그 구성 요소와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③ (가)에서 간단히 소개된 아극돈의 「봉사도」를 (나)에서는 「봉사도」의 그림과 여기에 실린 시와 그리고 「봉사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돕고 있다.

⑤ (가)는 조선 시대 공연 예술에 대해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나)의 경우에는 전통 공연 예술을 아극돈의 「봉사도」와 「봉사도」에 실린 시를 바탕으로 전통 공연 예술에서 사용된 예산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 〈자료 3〉은 예산대의 가산을 제거한 모습으로 수레와 인형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서 수레가 움직일 때 인형의 움직임, 즉 월궁 항아는 다리 위를 오가며 춤을 추고, 강태공은 낚싯대를 드리우고 물고기를 낚는 동작을 반복하고, 원숭이는 곡예를 펼치는 동작을 시연할 수 있어서 인형의 움직이는 모습을 설명하는 데 활용 가능하다.

오답 분석

① 〈자료 1〉은 예산대에 등장하는 인형들이다. 예산대의 인형들을 통해 예산대의 세부적인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제작 과정의 이해와는 관련이 없다.

② 〈자료 1〉이 더해지면 인형들의 모습을 통해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지에 대해 짐작하거나 인형의 외형을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예산대의 유래를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③ 〈자료 2〉는 예산대의 가산 안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퀴와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한 자료이다. 이는 인형에 동력이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자료이지, 인형들의 움직이는 원리나 동작에 대한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자료 2〉는 바퀴를 통해 예산대의 이동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나, 예산대에 각 인물들이 위치하게 된 이유를 알게 해 준다고 볼 수 없다.

3. '동아시아 전통 공연 예술의 보편성'은 ㉠ 바로 앞에 '산악·백희뿐만 아니라, 산대를 통해서도'라는 문장에서 '산대'를 근거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아극돈의 「봉사도」에 나타나는 이동식 무대 구조물인 '산대'를 통해, 그리고 '산대 위의 인형들은 기계 장치로 움직이는 인형일 가능성이 큰데 이런 인형들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발견된다.'를 근거로 ㉠의 보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전통 공연 예술이 주변의 여러 나라와의 교류를 통해 보편성을 지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 문단에 나오는 '이전의 산악·백희로부터 가면극이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가면극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 모두 발견되는데, 산악·백희를 발전시켜 한국은 본산대놀이, 중국은 나희(儺戲), 일본은 노오(能)라는 완전히 새로운 공연물로 재창조했다.'는 문장은 영향을 주고받은 것은 보편성에 해당하지만, 이를 발전시켜 각국이 고유한 공연 예술로 발전시킨 것은 '독자성과 고유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분석

② ㉠의 보편성은 ㉠ 바로 앞에 '산악·백희뿐만 아니라, 산대를 통해서도'라는 문장에서 '산대'를 근거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아극돈의 「봉사도」에 나타나는 이동식 무대 구조물인 '산대'를 통해, 그리고 '산대 위의 인형들은 기계 장치로 움직이는 인형일 가능성이 큰데 이런 인형들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발견된다.'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성은 '이전의 산악·백희로부터 가면극이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가면극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 모두 발견된다.'를 통해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교류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는 '춤추는 무희와 낚시꾼 인형은 동아시아에서는 널리 사랑받아 온 인형들이다.'와 '이들의 이름은 모두 자국 고사 속의 인물들이지만 결국 춤을 추고 낚시하는 인형이다.'를 통해 인형들은 같지만 각국의 고사 속에 나오는 서로 다른 인물로 각국의 공연 예술에서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4문단에서 '춤추는 무희와 낚시꾼 인형은 동아시아에서는 널리 사랑받아 온 인형들이다.'를 통해 동아시아의 전통 공연 예술에서 쉽게 발견되는 보편성임을 알 수 있다.
⑤ ㉠이 의미하는 동아시아 전통 공연 예술의 보편성은 (가)와 (나) 모두 '산대'에서 인형극이 펼쳐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가)에서는 4문단에서 (나)에서는 4문단에서 그러한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다.

Ⅳ 복합 지문

본문 100쪽

01 문학 갈래 복합

유형 연습 문제

시간, 반전, 고양이, 의태어, 대조 | 1 ③ 2 ④

(가) 박완서, 「오해」

- **주제:** 도둑 고양이에 대한 오해와 성찰
- **서술상 특징**
  ① 오해하게 된 배경에서 오해에 대한 깨달음의 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개함.
  ② 사건과 사건에 따른 정서적 반응이 짝을 이루어 전개됨.
  ③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반전이 일어남.
  ④ 대상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묘사를 바탕으로 함.
  ⑤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함.
- **해제:** 이 작품의 글쓴이는 대문 앞에 내놓은 쓰레기봉투를 고양이가 파헤치자 속상해한다. 글쓴이는 고양이가 좋아할 만한 먹잇감이 생기면 접시에 따로 담아 고양이가 다니는 통로에 놓아두는 것으로 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파헤치는 것을 막으려 한다. 그리고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일에 재미를 붙이게 된다. 어느 날 새끼 다섯 마리를 데리고 나타난 고양이를 보고 너무 반갑고 기쁜 나머지 고양이에게 다가가려다 고양이의 갑작스러운 적의를 마주하고 소스라치게 놀란다. 고양이가 떠나고 글쓴이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자신이 고양이에게 가졌던 생각이 인간 중심적인 착각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나) 황인숙,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 **주제:**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대한 거부와 자유로운 야생의 삶에 대한 소망
- **표현상 특징**
  ① 고양이를 통해 화자의 소망이 간접적으로 드러남.
  ② 특정 어미(~리라. ~겠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의지를 강조함.
  ③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함.
  ④ 대조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음.
- **해제:** 이 작품은 고양이를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삶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이 시의 고양이는 안락하고 편안하게 먹이가 주어지는 삶을 거부하고 상식의 틀에 갇히지 않는 야생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또 현실에 얽매이기보다 자유롭게 살고자 하며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고 고결하게 살고자 한다. 이러한 화자의 지향은 고양이를 통해 고양이의 행동들로 표현되어 있다.

1. (가)에서는 '고양이'와 관련된 화자의 경험이 소개되어 있다. 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며 길들였다고 생각했던 화자가 고양이 가족을 보고 반가워 다가갔다가 고양이가 적의를 드러내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던 경험을 통해 그동안 자신이 고양이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음을 깨닫는 내용이다. (나)에서는 '고양이'를 통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삶을 소망하는 화자의 새로운 삶에 대한 지향이 참신하게 표현되어 있다.

오답 분석

① (나)에는 글쓴이가 추구하는 가치가 드러나 있으나, (가)에는 일상의 경험을 떠올리며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다.

② (나)에서는 '거센 바람과 찬비', 즉 시련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하지만 (가)에서는 글쓴이가 겪는 시련이나 그러한 시련에 대한 극복 의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④ (가)에는 글쓴이의 기대가 일순간에 반전되며 글쓴이가 얻은 깨달음이 표현되어 있다.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기보다 대상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주로 드러나 있다. (나)는 화자가 고양이로 태어난 뒤 고양이로 태어난 화자가 추구하는 삶을 표현하고 있을 뿐, 대상에 대한 화자의 행동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⑤ (가)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고양이 가족이 되어 나타나고 하는 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관찰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깨달음으로 이어졌다기보다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길들였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고양이 가족을 보고 반가움에 취한 행동에서 고양이가 보인 반응이 자기의 기대와 달랐던 경험을 통해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나)는 고양이로 태어난 화자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표현한 것으로 깨달음이 창작의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나는 돌아가지 않으리라'와 '어둠을 핥으며 낟가리를 찾으리라'는 어두운 벌판에 들쥐도 참새도 가버리고 혼자 남은 상황에서 하게 될 고양이의 행동들이다. 돌아가지 않는 것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대한 거부'의 의미를 지니며, '어둠을 핥으며'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고독한 상황을 즐기려는 태도를 보여 준다. '낟가리를 찾으리라'는 잠자리를 마련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이상을 달성하려는 화자의 진취적 기상이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분석

① '툇마루에서 졸지 않으리라'와 '사기그릇의 우유도 핥지 않으리라'에서 툇마루와 사기그릇의 우유는 인간의 보살핌을 의미한다. 대가 없이 주어지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대한 거부가 드러난 것이다.

② '너른 벌판으로 나가리라'와 '거기서 들쥐와 뛰어놀리라'에서 너른 벌판은 자연 속 야생의 상태를 의미하고, '들쥐와 뛰어놀리라'는 자연 속 야생의 삶을 즐기겠다는 의미로 자유로운 삶에 대한 추구가 드러나 있다.

③ '꼬마 참새는 잡지 않으리라'와 '제일 큰 참새를 잡으리라'에서 '참새'는 화자가 꿈속에서도 잡으려고 하는 꿈과 이상을 상징하며, 큰 참새를 잡겠다는 것은 그만큼 꿈과 이상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나는 꿈을 꾸리라'와 '놓친 참새를 쫓아/ 밝은 들판을 내닫는 꿈을'에서 '놓친 참새'는 화자가 이루지 못한 꿈이며 목표이다. 그러나 화자는 그 이루지 못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 꿈을 꾸겠다고 말하고 있다.

본문 103쪽

02 독서 갈래 복합

유형 연습 문제

1 무상, 환몽 구조, 전설 | ⑤

(가) 설성경, 「구운몽 연구」

- **주제:** 조신 설화의 서사 전개 구조와 깨달음의 전달 방식
- **중심 내용**
  - ① 조신 설화의 서사 구조는 '입몽 – 첫 번째 꿈 – 두 번째 꿈 – 각몽'으로 구성되어 있음.
  - ② 조신 설화는 표층적 의미 구조와 심층적 의미 구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음.

(나) 작자 미상, 「조신 설화」

- **주제:** 세속적 욕망의 무상함
- **서술상 특징**
  - ① '현실–꿈–현실'의 환몽 구조를 지님.
  - ② 정토사 창건 설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전설의 성격을 지님.
  - ③ 현실의 이야기가 '겉 이야기'이고, 꿈속의 이야기가 '속 이야기'인 액자 형식 구조를 취함.
- **해제:** 조신이라는 승려를 주인공으로 한 환몽 설화(幻夢說話)이다. 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 오던 이야기를 고려 때 일연이 수집하여 『삼국유사』에 수록하였다. 조신이 태수 김흔공(金昕公)의 딸을 사모하여 우여곡절 끝에 함께 살게 되지만,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다가 결국 아내의 제안으로 헤어지게 되는 꿈을 꾼다는 내용이다. 꿈에서 깨어난 조신은 사재를 털어 정토사(淨土寺)를 짓고 불도를 열심히 닦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현실–꿈–현실'이라는 형식을 통해 인생무상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1. (가)에서 언급한 조신 설화가 일반 몽유 형태의 소설과 다른 점은 (가)의 3문단의 "이 작품에서 두 번째 꿈은, 만남 후의 삶이 보여 주는 '고'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이 세계가 앞의 '낙'의 세계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인공을 결정적인 깨달음의 세계로 이끈다."에서 찾을 수 있다. 꿈속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환몽 구조의 이야기와 동일하지만, 조신 설화가 지닌 특이점은 꿈속에서 즐거움과 고통을 모두 경험한다는 점이다.

오답 분석

① (가)의 4문단에서 '조신은 꿈을 통해 이러한 고락(苦樂)과 애환(哀歡)의 상관관계를 철저하게 체험한다. 이것은 인간

이 일체의 현상을 이분화하고 그중 하나를 좇음으로써 번뇌가 생겨난다는 관음보살의 가르침을 몽유의 형식을 빌려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 첫 문단에서 '조신의 정신 세계는 미망(迷妄)으로서의 고(苦)에서, 낙(樂)과 고(苦)의 세계를 거쳐 참된 깨달음으로서의 낙(樂)으로 진행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로 보아 조신이 미망에서 진각의 상태로 나아감으로써 부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된다고 할 수 있다.

② (가)에서 언급한 시간의 층위는 '현실 – 꿈 – 현실'의 서사 전개를 의미한다. (나)의 조신의 꿈은 현실에서 꿈, 다시 현실로 이어지는 서사 전개를 보여 준다.

③ (가)에서 조신 설화의 특징 중 하나로 일반 몽유 형태와 함께 비평적 부분이 공존하고, 설화적 이야기와 구분되는 작가의 직접적 언급인 찬시(讚詩)가 있어 의미를 강화해 준다고 하였다. 즉 (나)에서 마지막 삽입 한시는 찬시(讚詩)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직접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④ (가)의 마지막 문단에서 "조신은 꿈을 통해 이러한 고락(苦樂)과 애환(哀歡)의 상관관계를 철저하게 체험한다. 이것은 인간이 일체의 현상을 이분화하고 그중 하나를 좇음으로써 번뇌가 생겨난다는 관음보살의 가르침을 몽유의 형식을 빌려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과 (나)의 결말 내용을 통해 조신은 꿈속에서 겪은 낙(樂)과 고(苦)를 통해 부처의 가르침을 깨닫고 참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1 실전 대비 문제

본문 107쪽

시조 + 비문학 + 현대시 [1~3] 없음, 자연, 무위자연(無爲自然), 수미 상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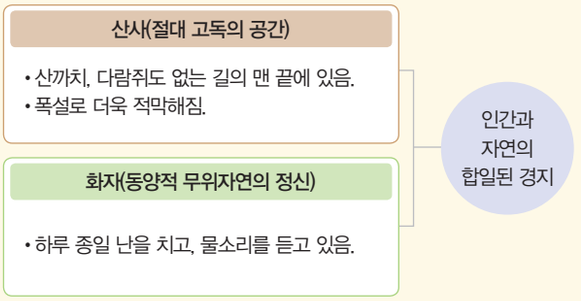
1 ⑤ 2 ④ 3 ⑤

(가) 김욱동, 「없음과 절로의 미학」

- **주제:** 시조 문학에 나타나는 '없음'과 '절로'의 미학
- **중심 내용**
  - ① 성혼의 시조에 나타난 '없음'의 미학 – 무위자연의 의미
  - ② 김인후의 시조에 나타난 '절로'의 미학 –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겠다는 무위자연의 의미
  - ③ 성혼의 시조에서 '절로'가 지향하는 주제는 자연임.

(나) 오세영, 「겨울 노래」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전통적, 허무적, 달관적
- **제재:** 적막한 산사의 겨울
- **주제:**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합일된 삶
- **표현상 특징**
  - ① 인간과 자연의 대립을 넘어선 조화와 합일된 삶의 경지를 추구함.
  -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동양적 허무와 달관의 정신을 드러냄.
  - ③ 대구를 통한 절대 고독의 공간인 산사에서의 고독감을 표현함.
  - ④ 한 폭의 동양화 같은 풍경 속에 선명한 색채 이미지(폭설/홍시)의 대비가 나타남.
  - ⑤ 객관적 상관물(홍시)를 통해 고독한 화자의 모습을 구체화함.
- **해제:** 이 시는 전통적 서정성과 불교적 세계관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합일된 삶을 노래하고 있다. 이 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5행에서는 수사 의문문(~겠느냐)을 통해, 동양적 허무와 달관의 정신을 역설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6~13행에서는 대구적 표현을 통해 절대 고독의 공간인 산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14~17행에서 절대 고독과 허무의 공간으로서의 산사의 풍경 묘사와 시적 화자의 무위자연의 태도의 묘사를 통해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8, 19행에서는 '산이 산인들 / 또 어쩌겠느냐'는 일종의 변형된 수미 상관식 구성을 통해, 절대 고독의 세계에서 빚어지는 동양적인 허무 의식과 달관의 정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시상을 완결짓고 있다.



1.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판단] (가)의 김인후의 시조에 나타나는 '절로절로'는 자연의 꾸밈없는 모습과 그 속에서 꾸밈없이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다. 인공을 가하지 않고 자연 속에 존재하거나 생겨난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는 일체의 인위적인 모습을 버리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담겨져 있다.

2.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한 작품 감상] ⓐ의 시조 작품에 등장하는 '분별없이'에서 '분별'은 '시름이나 걱정'을 뜻한다. 따라서 '분별없이'는 '근심 걱정 없는 삶'에 대한 추구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의 시조에 보이는 '절로절로'는 자연적으로 생겨난 대로 꾸밈없이, 작위 없이 늙어 가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 '분별 없이'와 ⓑ의 '절로절로'는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싶다는 것은 화자의 개인적 욕망과 관련된 것이므로, 자연에 순응한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오답 분석

① ⓐ의 '없음'은 '인위적인 것이 없음', '작위하지 않음'의 의미로 〈보기〉에 설명된 '무위'의 사상을 담고 있다.

② ⓑ에 나타나는 '절로'의 표현은 '자연'으로 번역되며, 이때 '자연'은 인공을 가하지 않은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생겨난 것을 의미한다.

③ ⓒ의 '자연'은 '절로'를 번역한 말로 무위자연과 통하며, 인위적이지 않고 작위하지 않은 삶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와 ⓑ의 '늙으리라', '늙사오려'는 '분별없이'와 '절로절로'의 수식을 받고 있다. 이 두 표현은 ⓒ의 한문 번역에 따르면 자연에서 얻은 삶이니 자연과 더불어 늙어 가겠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3. [구절의 의미 파악] [C]의 어제 뿌리던 '진눈깨비'와 오늘 내리는 '폭설'은 어지러운 현실 세계를 의미한다. 즉, 현실 세계에 내리는 진눈깨비와 폭설을 통해 현실의 혼란스러움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빈 하늘 빈 가지엔 / 홍시 하나 떨'고 있는 적막하기만 한 단절적 공간인 산속에서 화자는 '온종일 난을 치고', '하루 종일 물소리를 듣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무위자연의 태도와 달관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는 세상에 대해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세와 단절되어 적막하고 고요한 자연 속에서 무위자연을 지향하며 자연과 합일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E]의 '산이 산인들 또 / 어쩌겠느냐'는 [A]의 변형된 수미 상관의 기법으로 형태적 안정감에 기여하고 있다.

② [A]에는 '~겠느냐.'라는 종결 어미가 들어간 설의적 표현을 써서 동양적 허무와 달관의 정신을 강조하여 제시하고 있다.

③ [B]에서는 6, 7행과 8, 9행이 대구를 이루고 있다. '산까치도 간 데 없고', '다람쥐도 온 데 없다'는 구절에서 부재(不在)하는 것에 대한 반복적 표현이 나타나며, 이러한 반복을 통해 화자의 고독감이 부각되고 있다.

④ [C]에서 '길'은 인간이 만든 '문명'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길이 끝난 지점에서 '산'이 시작되는데 이 '산'은 자연의 세계, 즉 인간의 세계와 단절된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02 실전 대비 문제

본문 110쪽

비문학 + 현대 소설 [1~4] 비교 · 대조, 전(傳), 조롱, 웃음

1 ④ 2 ⑤ 3 ② 4 ④

(가) 「해학과 풍자」

- **주제:** 해학과 풍자의 개념 및 특성
- **중심 내용**
  - ① 해학은 절망적이거나 심각한 상황을 희화화하여 긴장을 이완시킴으로써 웃음을 유발하는 기법임.
  - ② 해학은 대상에 대해 호감이나 연민을 느끼게 하고 부정적인 상황을 웃음으로 극복하게 만들어 줌.
  - ③ 풍자는 웃음을 자아낸다는 측면에서 해학과 같지만, 그 웃음에 날카로운 비판 의식이 들어 있다는 점에서 다름.
  - ④ 풍자에는 우리 사회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음.

(나) 이문구, 「유자소전(兪子小傳)」

- **갈래:** 단편 소설
-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 **주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
- **서술상 특징**
  - ① 사투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향토감을 드러냄.
  - ② 전(傳)의 형식을 취하여 한국 문학의 전통을 계승함.
  - ③ 1인칭 관찰자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전지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이 등장함.
- **해제:** 이 작품은 전(傳)의 형식과 해학적, 풍자적 기법을 사용하여 총수를 풍자하고 있는 소설이다. 지역 사투리를 구사하여 작중 상을 전개하고 있는 이 작품은 '총수'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어 조롱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총수'와 대조되는 인물인 '유자'를 등장시킴으로써 웃음의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

유자	능청스럽게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표현함으로써 동정적 웃음을 유발함.	해학적 요소
총수	허영심과 위선에 가득 찬 총수를 비꼬아 표현함으로써 비판적 웃음을 유발함.	풍자적 요소

- **전체 구성**

발단	작가인 '나'에게는 '유재필'이라는 친구가 있다. 그는 매사에 생각이 깊고 곧은 성품을 지녔으며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그를 성인군자를 대하는 기분으로 '유자'라고 부른다.
전개	유자는 특유의 붙임성과 눈썰미로 학교에서 명물로 이름을 날린다. 졸업 후에는 선거 운동원과 의원 비서관 등을 지내다가 제대한 후 총수의 집에서 운전기사로 지내게 된다. 하지만 유자는 총수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한다.
절정 · 결말	총수에게 쫓겨난 유자는 그룹 소속 차량의 모든 교통사고를 뒤처리하는 노선 상무가 되는데, 그곳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산다. 또 말년에는 종합 병원 원무실장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6.29 선언 때 시위를 하다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사표를 낸 후 간암으로 생을 마감한다.

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 총수를 비꼬기 위해 한 말이므로 공격적 문체의 성격은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직설적이지는 않다. 돌려 말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총수를 비판하고 있다.

오답 분석

① ㉠ 충청도 방언을 활용하여 친근감을 주고 있다.

② ㉡ '그'는 '뱉어낸벤또', '차에코풀구싶어'와 같이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를 통해 해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③ ㉢ '그'는 '비단잉어'가 죽은 원인을 어느 정도 추측하고 있었지만 총수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모르는 척 의뭉을 떨어 화를 돋우고 있다. 때문에 이 장면을 읽는 독자들은 총수에 대한 비판을 하려는 '그'의 의도를 읽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웃음을 짓게 된다.

⑤ ㉤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총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글이라는 측면에서 보편적인 주제 의식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단잉어는 가련하게 여기면서 사람에게는 인색하게 굴고 함부로 말하는 총수의 위선적이고 비인간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서술상의 특징 파악] '나'가 '그'와 만나고 있는 현재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총수'와 '그'의 갈등이 벌어지는 과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시 점을 변화시켜 등장인물의 심리와 사건의 정황을 실감나게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분석

① '그'가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을 뿐 다양한 인물의 시각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나'가 '그'와 만나고 있는 현재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나'의 심리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또한 총수와 '그'의 갈등이 벌어지는 과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어 '그'와 총수의 심리를 직접 드러내고 있다.

③ 이 글은 '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나'가 서술한 내용을 담고 있다.

④ 인물의 내면적 생각들을 나열하여 서술하는 방식인 의식의 흐름 기법은 보이지 않는다.

3. [서사 구조를 바탕으로 한 작품 감상] ㉯ '그'와 '총수'의 갈등은 ⓑ와 ⓒ에 나타나므로 ⓑ가 ⓒ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에는 '그'와 '총수'의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 ⓑ에서 많은 사람 중에 '그'를 겨냥해서 '총수'가 잉어에 대해 물었을 뿐 '그'가 잉어가 죽은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지명하여 물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에서도 잉어의 행방을 '그'를 지명해서 물었을 뿐이다.

오답 분석

㉮ ⓐ는 연못 공사와 연못에 잉어를 풀어 놓은 것, 그리고 그것이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요약적 진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에서 '그는 총수가 그랬다고 속상해할 만큼 속이 옹색한 편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들은 말만은 쉽사리 삭힐 수가 없었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서술자가 전하는 중심 이야기는 총수가 기르던 잉어와 관련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술자인 '나'가 사건의 당사자인 '유자'로부터 ⓒ에서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듣고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와 ⓑ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4. [인물의 성격 파악] (나)에서 유자는 사치와 허위의식에 빠진 총수를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상황을 보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나)의 내용을 보면 문제점만 드러날 뿐 해결점은 보이지 않는다.

오답 분석

① 유자는 총수의 행동에 비위가 상해서 의뭉을 떨며 대답하여 총수의 화를 돋우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⑤ 작품 시작 부분에서 '그가 자기주장에 완강할 때는 반드시 경험론적 설득 논리로써 무장이 되어 있는 경우였다.'라는 내용을 참고할 때 적절하다.

③ 총수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일반 사람들의 월급보다 몇 배나 비싼 비단잉어를 수입해 사치에 빠져 있다. 유자는 이러한 총수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